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하원은 15일 운전중 셀폰통화 금지 법안을 155대 2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6월 초 표결하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운전중 앞으로 핸드프리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운전중 셀폰통화금지 법안 하원 압도적 통과

### 주지사 1월 상정, 상원도 유사 법안 6월 초 표결 인종차별 방지장치로 경찰 티켓에 인종 기입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운전중 셀폰을 들고 통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이 그동안 이 법안의 최종 좌초지 역할을 했던 매사추세츠 하원에서 155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운전중 셀폰 통화금지 법안은 지금까지 매사추세츠 의회에 수차례 상정됐으나 하원의 반대로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못했다. 반면 뉴

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케네디컷, 뉴욕 등은 모두 운전중 셀폰 통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몇 년전까지 이법안을 반대했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1월 이 법안을 상정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 매사추세츠는 2010년부터 운전중 문자는 금지해왔다.

베이커 주지사가 지난 1월 22일 상정해 통과된 이 법안은 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를 금지토록 했으며 대신 블루투 >>6면으로 계속



## 2019년 보스톤 1베드룸 렌트 평균 4.5% 올라

보스톤 원베드룸 고급고층 아파트 가격상승 주도  
보스톤 74개 전철역주변 인상, 39 전철역은 하락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1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지난해에 비해 4.5% 오른 \$2,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스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팍스트리트역 인근 아파트의 렌트비는 8.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주요 대도시 역세권 아파트 렌트가 격변화 추이를 조사한 렌트전문사이트 렌트홉(RentHop)의 조사에 따르면 보스톤 75개 전철역 주변 아파트만 인상돼 지난 2018년 90개 전철역 주변 인상보다는 줄었다. 그럼에도 보스톤은 미국내에서 역주변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중의 하나였다.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여름출발  
인천행 직항항공권  
\$1439~

ICE TRAVEL  
617.424.8956  
월요일 | 화요일-금요일 낮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EST

NewsStar Real Estate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 보스톤발레 한서혜 첫 오프닝 무대 주연

## 보스톤 발레단 한인 무용수들 5명 활약 보스톤글로브 "한서혜 발레 빛났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보스톤발레의 수석 무용수 (Principal Dancer) 한서혜 씨가 10일 처음으로 공연하는 보스톤발레단의 '신데렐라' 오프닝 무대의 주연을 맡아 기립박수를 받았다.

보스톤 발레단 각종 작품의 오프닝 공연은 그동안 보스톤발레단의 대표 수석무용수였던 미사 쿠라나가 맡아 오고 있었다. 한서혜 씨는 미사 등과 함께 보스톤발레단의 각종 작

품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지만 오프닝 공연을 주연으로 활약한 적은 없었다.

프레드릭 애쉬턴 안무버전의 신데렐라는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보스톤 다운타운 보스톤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다. 애쉬턴의 신데렐라는 1막에서 대모요정과 4계절요정이 등장하며 신데렐라가 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계절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선물로 독특한 시즌 안무를 선보인다. 10일 공연에서는 봄의 요정을 맡은 보스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채지영 씨가 뛰어난 캐릭터 발레를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2막에서는 신데렐라가 연회의 계단에 도착해 발끝으로 서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연회전의 많은 발레와 불거리가 풍부한 스타일은 전형적인 애쉬턴 스타일이라는 게 보스톤 발레단의 설명이다.



5월 10일 보스톤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 신데렐라의 주연을 맡은 한서혜 씨가 2막에서 계단을 발끝으로 앞만 보고 내려오는 장면

신데렐라는 1948년 향후 로열 발레단이 된 새들러 웰스 발레단이 월드 프리미어로 공연했다. 당시 신데렐라역에는 유명한 발레리나 마고 폰틴(Margot Fonteyn)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모리아 쉬어러에게 돌아갔다. 특히 신데렐라의 이복 누이 역은 남자 배우들이 맡아 아주 코믹하게 풀어간다.

보스톤글로브의 제프리 갠츠 기자는 리뷰에서 한서혜 씨에 대해 "빛나는 한서혜의 연기는 그 역에 딱 맞았다. 빗자루와 알츠를 출 때 가벼웠

고 간결했으며 시적이었다. 연회 입장시 계단을 내려올 때도 침착했다. 왕자와 함께 추는 커플댄스 파드되(pas de deux)에서는 왕자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봤다. 특히 왕자를 두고 회전하면서 도는 세네(chainé)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 평했다.

관중들은 한서혜 씨의 세네가 끝나자 큰 박수로 환호했다. 이날 발레공연에서는 봄의요정으로 분한 채지영 씨 이외에도 이선우 씨가 왕자의 친구 역을 맡아 훌륭하게 소화했

다. 이선우 씨는 지난해 연말 보스톤 발레 첫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소화해내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이소정 씨도 신하 역할로 이날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 보스톤 발레에 합류한 이수빈 씨는 이날 출연하지 않았다.

스케줄 확인 : <https://www.bostonballet.org/Home/The-Company/Dancers/2018-2019-Season-Casting/Cinderella-Casting>  
editor@bostonkorea.com

### 공연 스케줄

- Friday, May 17 at 7:30 pm
- Saturday, May 18 at 1:30 pm
- Saturday, May 18 at 7:30 pm
- Thursday, May 23 at 7:30 pm
- Sunday, May 26 at 1:30 pm
- Saturday, June 1 at 1:30 pm
- Saturday, June 1 at 7:30 pm
- Sunday, June 2 at 1:30 pm
- Thursday, June 6 at 7:30 pm
- Friday, June 7 at 7:30 pm
- Saturday, June 8 at 1:30 p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35주년 맞은 총영사컵 로드아일랜드 태권도 대회

보스톤 총영사컵 로드아일랜드 오픈 1000여명 참가  
로드아일랜드 상하원 정치인들 찾아 태권도 관심 표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35주년을 맞은 보스톤 총영사컵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약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5월 10일 토요일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이스트 그리니치 하이 스쿨에서 열린대회에는 김용현 총영사 내외, 모니카리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을 비롯해 데이비드 시실리니 연방 하원의원, 마이클 케프리, 로드 아일랜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브라이언 케네디 하원의장 대행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뉴잉글랜드 지역 30개 도장에서 지난해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1000여명의 선수 학부모가 참가하여 3세에서 80세까지의 선수들이, 격파, 품세, 겨루기를 밸트 벨, 체급별로 기량을 겨루었다.

홍진섭 대회장은 케네디 의원에게 국기원 명예 4단증을 수여했다. 케네디 의원은 도복에 검정띠를

매고 크리스 흥 사범의 지도 하에 송관 격파 시범을 보였고, 맥케프 리 상원 원내대표는 명예 5단증을 수여받았다. 로드 아일랜드 의회는 김용현 총영사와 흥진섭 관장에게 표창장(Citation)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에서 품세, 겨루기, 격파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4명이 정부 초청으로 미국 총영사컵 우승자들이 다시 겨루는 결선 대회에 출전 한다.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태권도 대회로 1회 대회를 브라운 대학에서 시작한 이후 35년째 이어지고 있다. 흥진섭관장과 친분이 두터운 데이비드 시실리니 연방 하원의원은 내년 대회에서는 자신이 송관 격파 시범을 보이고 싶다며 계속해서 참석할 뜻을 비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35주년을 맞은 보스톤 총영사컵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약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홍진섭 대회장은 케네디 의원에게 국기원 명예 4단증을 수여했다



김용현 총영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케네디 하원의장 대행



축사를 전하고 있는 데이비드 시실리니 연방하원 의원

## SAT Plus

###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평통 통일 골든벨 대회 김수선 학생 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보스톤지역 협의회(회장 윤미자)가 2세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한 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10학년 김수선 학생이 만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수선 학생은 KBS가 주최하는 '도전! 역사통일골든벨'의 한국 본선 진출 자격을 획득했다.

11일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된 제3회 "통일 골든벨을 울려라" 대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은 박윤호(5학년), 윤세진(4학년)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우수상은 김소정(11학년), 김유정(12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국강민(7학년), 박서진(3학년), 이샘(7학년), 이세라(1학년), 황희(6학년)에게 돌아갔다.

평통은 전체 참가상으로 기프트카드, 상장, 상품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으로 대상 한명 \$300, 최우수 2명 \$200, 우수상 2명 \$100, 장려상 5명 \$50이 전달되었다.

장수인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며 배우고 이해한 한국의 역사와 평화통일의 의지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하는 지식과 애국심이 될 것이며 내일의 역사를 써나



11일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된 제3회 "통일 골든벨을 울려라" 대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나라를 위한 일해 줄 훌륭한 큰 사람으로 자랄 것을 믿는다" 고 말했다.

장우석 한인회 회장은 "이는 한인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뿌리를 되새기고 모국의 역사와 한반도 평화를 퀴즈로 재미있게 풀어 보는 행사"라며 "준비 위원들의 수고에 감사 드린다" 고 전했다.

행사를 맡아 진행한 이현경 준비위원장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 행사가 재외동포 2세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에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주어서 힘든 준비였지만 뿌듯함을 느낀다" 고 전했다.

수상자  
대상: 김수선 10학년  
최우수상: 박윤호 5학년 / 윤세진 4학년  
우수상: 김소정 11학년 / 김유정 12학년  
장려상: 국강민 7학년 / 박서진 3학년 / 이샘 7학년 / 이세라 1학년 / 황희 6학년

bostonkorean@hotmail.com

## 메모리얼 연휴 음주단속 실시

###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음주 검문소 설치 단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 경찰(State Police)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동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음주검문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설치지점이 공개되지 않은 이 검문소는 메모리얼데이 연휴인 24일 금요일에서 25일 토요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주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문소는 다양한 시간대에 운영될 것이며 선별적인 차량만 검문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두려움과 우려를 떨치기 위해 이번 사전 공지를 제공하며 운전자의 불편은 최소화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단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24일과 25일 중에는 음주운전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 정관장



정관장으로 **에브리타임** 활력충전!

**3월 31일 까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Event 2**



홍삼정 골드, 홍천옹 구입시  
홍삼정 마일드 10파우치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판매처 방문예치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여러 국가에서 도움을 손길을 뻗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진 10점도 함께 전시된다

## 도움받는 한국 도움주는 한국 주청사서 한눈에

한국평화봉사단원 및 한국국제협력단 사진전  
매사추세츠 주청사 4층 로비에서 4일간 전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과거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이 도움을 받는 모습과 이제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매사추세츠 주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눈을 잡아끌게 될 예정이다.

1960년에서 80년대까지 한국에 파견되었던 한국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들의 모임인 프렌즈오브코리아(Friends of Korea)가 한국에서 활동

했던 모습을 담은 사진 10여점을 전시해 그들의 활약상을 주청사에서 공개한다. 이제 여러 국가에서 도움을 손길을 뻗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진 10점도 함께 전시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해 볼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 사진전(Photo Exhibition on Volunteerism: Friends of Korea and KOICA)이란 제목의 이 사진 전시회는 5월 28일 화요일부터 31일까지

매사추세츠 주청사 4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주청사 4층은 매사추세츠 하원 본회의가 열리는 장소다.

이번 행사는 주보스톤총영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렌즈오브코리아(FOK), 매사추세츠 주의회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리셉션은 사진전이 시작되는 5월 28일 2시 상원룸 428호에서 개최된다.

제목: Photo Exhibition on Volunteerism: Friends of Korea and KOICA  
일시: 2019년 5월 28일-31일  
장소: Massachusetts State House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앤도버지역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한인들 모습

## 앤도버 메모리얼 퍼레이드 한인들 많이 참가해주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해마다 열리는 앤도버지역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를 앞두고 해마다 한인들을 이끌고 참가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회(회장 강경신)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퍼레이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출발하므로 앤도버 올드 타운을 엘름 스트리트(Elm St)와 파크 스트리트(Park St)가 만나는 지점에 9시 30분까지 집결해야 한다. 한국전 참전유공자회가 이끄는 한인 대열은 퍼레이드 1디비전에 속해 이곳에서 집결한다.

참전유공자회 강경신 회장은 “한

국전쟁에서 미군의 전사자는 5만4천2백46명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 한국의 자유를 지켜냈다. 아름다운 미국에 이분들이 돌아와 살아야 될 것을 내가 와서 살고 있으니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전몰용사의 넋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을 알리고 한미친교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 의사가 있는 한인들은 6.25 참전유공자회 강경신 회장(978-725-9597)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서울설령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 푸슈킨 탄생 기념 음악회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5월 2일 브루클라인 퍼블릭 라이브리 허니맨홀 (Hunneman Hall)에서 한국메트르협회 주최로 러시아의 대문호 푸슈킨의 탄생 2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Sharing the Muse”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푸슈킨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러시아 가곡들을 선보여 많은 음악애호가들과 푸슈킨 애호가들의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

푸슈킨의 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러시아 작곡가 메트너 (1880-1951)와 스베리도프 (1915-1998)의 대표작들을 소프라노 엘레나 민들리나 (Elena Mindlina)와 피아니스트 신해신, 나탈리아메드베도프스카야(Nataliya Medvedovskaya)가

연주하였다. 작곡가이기도 한메드베도프스카야는 푸슈킨의 시를 바탕으로 한 본인의 성악곡과 피아노 독주곡 또한 선보였다. 러시아와 한국 출신 음악가들의 교류의 일환으로 세 연주자들은 한국 가곡 “신 아리랑”, “베를 노래”와 미국 가곡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소프라노 민들리나는 러시아 사라토프 콘서바토리 바이올린 교수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찌기 바이올린으로 음악교육을 시작, 도미 이후 스토니브룩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링컨센터, 내셔널 오페라 센터 등지에서 연주하였다. 미국 푸슈킨 소사이어티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샤펜페테르부르크출신 작곡가 메드베도프스카야의 작품은 워싱턴포스트와 LA 타임즈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피아니스트 신해신은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거쳐 보스톤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2016년 한국메트르협회를 설립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참신한 기획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메트르협회는 잊혀진 러시아의 작곡가 메트너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지난 2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기연주회는 한국내 평단으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았으며, 미국과 한국내 유일한 메트너 연구단체로서 국제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피아니스트 신해신은 미국 푸슈킨 소사이어티의 초청을 받아 오는 6월 28일 뉴욕 맨하탄 푸슈킨 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연주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 운전중 셀폰통화 적발시 첫번째 위반에 \$100

▶▶1면에 이어서

스나 다른 핸드프리 기기를 사용해서 통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셀폰을 한번 터치하거나 핸드프리 모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을 제외하고 셀폰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상통화도 금지된다. 운전자들은 대시보드의 지도 앱 또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운전중에 주소를 쳐 넣는 것은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의 경우 셀폰 사용이 가능하다.

첫번째 위반에는 \$1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번째 위반에는 \$250, 그리고 이후 6년내 적발되는 모든 위반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세번째 위반부터는 자동차보험 별점으로 이어진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통과와 발목

을 잡았던 경찰이 소수민족 및 인종 단속을 더 많이 한다는 우려를 해소했기 때문이었다. 법안은 경찰이 편파적인 단속을 했을 경우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로 경찰의 티켓에 인종을 적는 란을 신설토록 했다. 그동안 의원들은 경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번번히 부결됐었다.

매사추세츠 상원은 자체의 유사 법안을 6월 6일 표결기로 했다. 상원은 벌써 2차례나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월 자신이 상정했기 때문에 최종 법안이 자신의 책상 위에 송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hsb@bostonkorea.com

**What the law would permit, not permit**

YES ELECTRONIC DEVICES CAN BE USED IN HANDS-FREE MODE

NO ACCESS TO SOCIAL MEDIA

NO CALLS

NO USE OF CAMERA

**Proposed penalties for breaking the law**

First offense	Second offense	Third or subsequent offense within six years
\$100	\$250	\$500
		+ Automobile license surcharge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트럼프, 연방빈곤선 하향조정 복지수혜자 축소될 듯

매년 연방빈곤선 산정 기준 변경, 빈곤소득 증가폭 낮아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복지수혜혜택의 기준으로 삼는 연방빈곤선의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 향후 상당수의 중저소득층이 자신들의 복지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예산관리국(OMB)은 5월 6일 연방빈곤선에 매년 연방빈곤선을 결정하는 인플레이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공식빈곤측정" 법안을 제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은 매년 4월 물가상승을 반영해 일정부분 인상돼 결정된다. 2019년 빈곤선 100%는 1인 기준 \$12,140이었으며, 이하의 소득자들을 빈곤층으로 간주한다. 연방 정부는 이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메디케어(매스헬스), 푸드스탬프 등 각종 정부혜택의 대상자들을 산정한다.

현재 연방빈곤선을 계산하는 방식은 최소 식생활비용의 3배를 곱하는 방식이며 매년 이 식료품 가격의 상승을 바탕으로 조정됐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적용하던 방식으로 실제적인 물가인상지수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연방관보에 상정된 새로운 계산방식은 소위 "연쇄CPI"라는 방식으로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좀더 싼 대체품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생활비용이 좀더 적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실제적 연방빈곤선의 소득이 조금씩 낮아지게 된다.

실제적으로 연쇄 CPI를 적용한 계

산방식에 따르면 2019년의 연방빈곤선은 \$12,140 이하가 아닌 \$12,113이란 것이 아메리칸 액션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계산이다. 더글라스 홀츠이킨 AAF 회장은 자신은 이 같은 계산방법이 좀더 정확하므로 이 같은 계산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에는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점차 누적이 되다보면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백악관예산관리국의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혜택 수혜를 줄이려는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연방 기관들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만 복지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의 1베드룸 렌트비가 지난해에 비해 4.5% 오른 \$2,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스톤 렌트비 가장 비싼 전철역은?

▶▶1면에 이어서

보스톤전철역 중 가장 비싼 전철역은 텀스메디컬센터역으로 1베드룸 평균렌트가 지난해에 비해 .04% 오른 \$3,426이었다. 두번째 비싼 곳은 차이나 타운역으로 평균 렌트비는 지난해보다 2.9% 오른 \$3363을 기록했다. 특히 차이나 타운역 바로 근처의 고급 고층 아파트 660 워싱턴 스트리트(660 Washington Street)는 인근 아파트의 렌트비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백베이역(오렌지 라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은 130 Dartmouth St. 아파트에 \$3000이하의 아파트가 많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렌트비가 6.3% 하락한 \$3,245이었다.

전철을 타고 보스톤 도심에서 멀어지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폭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역하나를 두고 가장 렌트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블루라인 아쿠아리움역(\$2,995)과 다음역인 매버릭 역

(\$2,194)으로 \$801차이였다. 이곳은 보스톤 하버와 바다를 건넌 이스트 보스톤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격차다. 두번째는 파크스트리트역(\$3200)과 찰스/MGH역(\$2,400)으로 \$800차이다.

렌트비가 가장 저렴한 곳은 매타팬(레드라인)으로 1베드룸 평균 렌트가 \$1675이었다. 그린라인중에 가장 저렴한 지역은 울스턴 지역이며 워렌스트리트역 인근이 \$1820, 허버드에비뉴 인근이 \$1850으로 저렴했다. 오렌지 라인에서는 오크그로브역이 \$1700로 저렴했으며 블루라인은 로건에어포트역이 \$1760으로 가장 저렴했다.

렌트홈은 렌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시여기는 지표중의 하나인 전철역을 기준으로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체 렌트비를 조사해 1베드룸 평균을 산출한다.

hsb@bostonkorea.com

### 2019 Federal Poverty Guidelines for Financial Assistance Calculation

Persons in Family or Household	100% FPL	Medicaid Eligible 133% FPL	FAP Eligible Up to 300% FPL	FAP Eligible 301-400% FPL	FAP Eligible 401-500% FPL
1	\$12,140	\$16,146	\$36,420	\$48,240	\$60,700
2	\$16,460	\$21,892	\$49,380	\$64,960	\$82,300
3	\$20,780	\$27,637	\$62,340	\$81,680	\$103,900
4	\$25,100	\$33,383	\$75,300	\$98,400	\$125,500
5	\$29,420	\$39,129	\$88,260	\$115,120	\$147,100
6	\$33,740	\$44,874	\$101,220	\$131,840	\$168,700
7	\$38,060	\$50,620	\$114,180	\$148,560	\$190,300
8	\$42,380	\$56,365	\$127,140	\$165,280	\$211,900
Allowed Discount	100%	100%	100%	75%	50%
Amount Owed	0%	0%	0%	25%	50%

For Household larger than 8: Add \$4,320 for each additional person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라일락 꽃 피는 5월 하버드 아놀드 수목원에 아이와 함께 방문할 시 미리 알아두면 좋을 8가지 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꽃 피는 봄은 단연 수목원이 빛나는 계절이다. 보스톤 인근에 있는 하버드 아놀드 수목원은 특히 5월에 피는 라일락 꽃으로 유명하다. 봄나들이로 수목원 방문을 계획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미포핀스에서 제안한 아이와 함께 방문할 시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8가지를 소개한다.

아놀드 수목원은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문을 열고, 입장료는 없지만 기부금을 받고 있다. 피크닉과 스포츠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비눗방울이나 연날리기는 허용된다. 수목원 게이트 앞의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객 센터 1층에 화장실이 있다.

Arnold Arboretum of Harvard University

125 Arborway, Boston, MA 02130

www.arboretum.harvard.edu

1. 허너웰 방문객 센터

화창한 날 수목원에 방문하여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겠지만 허너웰 방문객 센터(Hunnewell Visitor Center)를 미리 둘러본다면 커다란 규모의 수목원을 어떻게 둘러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식물들의 위치를 인터랙티브한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특정 식물 표본을 현미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

수목원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걸어



Arnold Arboretum of Harvard University 허너웰 방문객 센터(Hunnewell Visitor Center)

서 진행되는 투어는 허너웰 방문객 센터에서 시작된다. 3살 이상의 어린이부터 참여 가능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3. 디스커버리 팩

귀여운 배낭 안에 아이들이 수목원의 식물을 비롯한 환경과 상호 작용하도록 권장하는 자료가 들어있다. 아이들은 살아있는 박물관(Living Museum), 과학실험실(Science Lab), 엔지니어 되기(Be be an engineer)의 세 가지 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추가된 엔지니어 되기 팩에는 다리와 그네를 만들 수 있는 나무 막대기를

비롯한 재료들이 들어있다. 이 배낭은 방문객 센터에서 빌릴 수 있다.

4. 보물찾기 D.I.Y.

솔방울이나 도토리, 돌멩이나 민들레, 특정 나뭇가지 모양 등, 아이의 나이와 관심사, 방문 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D.I.Y. 보물찾기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적합한 활동이 될 것이다.

5. 이달의 나무 공부하기

아놀드 수목원은 매달 이달의 나무를 지정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나무에 관해 공부하고 수목원 내에서 그 나무를 찾아보면 어떨까. 종이와 크레용을

준비하여 나무의 청동 레이블이나 줄기, 이파리(주변에 떨어져 있다면)의 본을 따는 것도 나무를 공부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6. 분재 컬렉션

다나 그린하우스(Dana Greenhouse) 인근에 있는 분재 컬렉션은 아이들에게 정원 가꾸기가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줄 기회가 될 것이다. 아보어길(Arborway)이나 포레스트 힐스 게이트(Forest Hills Gates)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7. 야생동물 빙고

매, 잠자리 등 많은 동물이 아놀드

수목원에 서식하고 있다. 수목원을 둘러보면서 야생동물 빙고 게임을 하면 동물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야생 동물 빙고 게임은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프린트할 수 있다.

8. 꽃길 산책

5월은 라일락 시즌으로 봄의 중반부터 늦은 봄까지 자주색 꽃이 수목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또한 겨울 동안 썰매 언덕으로 애용된 월드 힐(Weld Hill)은 봄이 오면 아름다운 야생화로 가득 채워진다.

sun@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RE/MAX**

**Westwood  
Medfield  
Dover  
Sharon**  
(4곳 모두 학군 좋고 안전한 타운)

주택 구매와 판매  
모두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Lisa Jung Nichols  
REALTOR

RE/MAX DISTINCT ADVANTAGE  
736 High Street, Westwood, MA 02090  
Office: (781) 326-9200 Cell: (857) 225-0307  
Email: Lisahnichols@yahoo.com

# 캠브리지, MA주 깃발 사용 반대

## MA주 깃발은 억압과 패권의 상징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 줄 수 있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자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캠브리지 시가 매사추세츠를 상징하는 깃발 사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매사추세츠 주 깃발이 상징하는 내용이 '공격적(offensive)'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회의에서는 매사추세츠 주를 상징하는 깃발과 표어를 바꾸고 새로 디자인하자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캠브리지 시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캠브리지 시에서 매사추세츠 주 깃발을 아예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문양과 깃발에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 부족인 알콘킨 족의 인디언이 황금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황금색인 활과 화살을 양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활을 들고 있는 오른손 위에는 은색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 최초의 13개 주 중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란색 배경의 인디언 그림 위에는 큰 칼을 쥐고 있는 손이 그려져 있고, 주 위에는 파란 리본에 황금색 글씨가 쓰여져 있다. 리본으로 쓰여져 있는 이 글귀는 "우리는 칼을 통해 평화를 이루었지만, 평화는 오직 자유 안에서만 가

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은 매사추세츠 주의 깃발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억압적이라고 말한다. 매사추세츠 풍코포아 그 부족의 일원인 로빈 해리스는 "우리는 깃발을 볼 때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물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마크 맥고번 캠브리지 시장은 억압과 패권의 상징을 없애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깃발을 없애기 시작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인종 차별과 학살의 역사와 싸우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 각 공공 기관은 본관이나 행정 건물에" 반드시 매사추세츠 주 깃발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jsi@bostonkorea.com



캠브리지 시가 매사추세츠를 상징하는 깃발 사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로버트 크래프트 패트리어츠 구단주(7)

## 패트리어츠 구단주 '성매매 동영상' 증거 배제

### 판사, 동영상 증거 채택 금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로리다 마사지팔러에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제판을 받고 있는 로버트 크래프트 패트리어츠 구단주(7)가 자신의 성행위 모습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비디오의 증거 채택을 13일 금지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레오나드 헨스 판사는 1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플로리다 주 피터타운 경찰이 오치드스오브아시아 데이스파(Orchids of Asia Day Spa)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발급받은 영장이 문제가 있다며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 변호사 손을 들어 주었다.

"퇴고의 증거배제 신청은 승인되며 그 수색영장을 통해서 획득된 퇴고에 대한 모든 증거는 배제된다"고 헨스 판사는 수정헌법 4조를 인

용, 판결했다. 수정헌법 4조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정부의 부적절한 법집행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원의 영장 없이 인신구속이나 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경찰은 올해 1월 이 아시아데이 스파에 수일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를 비롯한 다른 24명이 성매매를 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으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었다.

플로리다주 검찰청 데이브 아론버그 측은 헨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 동영상 없이 기소할 것인지, 기소를 유예할 것인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사랑하는 부모님께 티보플레이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국립립대 설치 3999 \$2999

부모님께 설치 3999 \$2999 FREE

1+1 호도이벤트 영화도 모두 무료

다각이리노광레진

**NEW 티보플레이**

- 1. 100% 100% 100%
- 2. 100% 100% 100%
- 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17-949-1766

##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특별가 이벤트

#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 1 휴람 안 종합검진 (베이직 :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미엄 : 1시간 30분)

40대가 되셨나요? 눈도 풍겨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1) 휴람 베이직 안검진 : **10만원** (10여 가지 검사)
  - 시력상대, 색내장, 녹내장, 망막이질어문 기본질환 유무 확인
  - 기본시력검사(안안, 안경치방, 타각력, 굴절력, 노안) + 세극등현미경, 안압, 안저촬영
- 2) 휴람 프리미엄 안검진 : **25만원** (50여 가지 검사)
  - 기타부터 시신경 병마 구제구적제자한 정밀검진, 2인1차 한면역은 필요없습니다.
  - 휴람 베이직+녹내장+색내장+안구진료증+시신경영양+기타안정밀검사 포함

## 2 노안 잡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오래 사용하신 노후된 백내장 수정체 대신 깨끗한 뉴-수정체로 바꿔 시력을 되찾으세요~  
신문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시원하게 쬐는 풍경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1) 노안교정 백내장 : **299만원** (양안)
- 2)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 **700만원**

##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휴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나요?  
노안이 왔다 레이저 라식/라섹수술로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곳중엔 프르제프리(노안 해결)

**150만원** (프리미엄 안검사 포함)

## 4 2030 라식/라섹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가능합니다.  
※ 수술에 제한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면...**

20~30대 여러가지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등을  
돋보기를 통해 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허오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s@huras.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 로건 공항 미국서 5번째로 최악

## 76.8% 비행기만 제 시간에 도착 겨울보다 여름에 지연 비율 높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여행 성수기인 여름에 보스톤 로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기 지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름에 로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5번째로 안 좋은 여행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눈이 많이 오는 보스톤의 겨울 날씨 때문에 로건 공항에서도 겨울에 비행기가 많이 연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커먼카드(CommonCards.com)에 따르면 로건 공항에서 항공기 연착이 가장 심한 계절은 여름이다. 이 때문에 여름철 로건 공항의 항공기 연착 수준은 미국에서 5번째로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커먼카드는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50개의 공항을 조사했다. 연방 교통부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공항에서 어느 계절에 항공기 연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름에 보스톤 로건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중에서

정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는 72.9%에 불과했다. 여름철 항공기 연착이 가장 심한 곳은 뉴저지에 위치한 뉴어크 공항으로 67.3%의 비행기만이 정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미국에서 비행기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착륙하는 곳은 호놀룰루와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이었다. 이 두 공항은 각각 87.2%와 85.8%의 정시 착륙

비율을 보여주었다.

로건 공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겨울철에는 비행기의 75.9%가 정시에 도착했다. 여름과 비교하여 3%가 높은 수치다.

계절과 상관없이 로건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들은 평균 76.8%가 제 시간에 착륙했다. 이 역시 미국에서 5번째로 비행기 연착 비율이 높은 수치다.

로건 공항을 이용할 경우 비행기들이 가장 정확하게 오는 계절은 가을이었다. 가을에는 81%의 비행기가 연착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로건 공항에서 항공기 연착이 가장 심한 계절은 여름이다



최근 5년 사이에 3번이나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케빈과 자넷 부부

## 5년 동안 100만 달러 복권 3번 당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누리지 못할 행운을 몇 번씩이나 맞이한 커플이 있다. 매사추세츠 레이크빌에 거주하는 부부가 최근 스크래치 형식의 즉석 복권에서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 이 부부는 최근 5년 사이에 3번이나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었다.

매사추세츠 복권 부서에 따르면 자넷 플로머-필립스는 지난 13일 “다이아몬드 밀리언즈”의 100만 달러 당첨금을 수령했다. 이 복권은 30달러를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즉석 복권이다. 자넷은 미들보로의 웨스트

그로브 스트리트에 위치한 에이앤에이 페트로(A&A Petro)에서 해당 복권을 구입했다.

자넷의 남편인 케빈은 지난 2014년 4월과 2016년 9월에 각각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었다. 당시 케빈은 미들보로의 트루치스 슈퍼마켓과 캔톤의 샤프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자넷은 이번엔 받은 복권 당첨금을 친구들과 가족들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아몬드 밀리언즈” 중에는 아직 당첨되지 않은 78개의 100만 달러 복권이 있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http://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나의노후?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 트럼프, 미 이민법 방향 튼다 가족보단 능력 우선

## 가족이민 반으로 줄이고 숙련노동자 이민 장려 타 선진국 이민제도 참고...기술이민 57%까지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고숙련 노동자들의 합법 이민을 장려하고 국경 안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민법 개혁안을 제안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는 영어가 유창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데다 일자리 제의를 받은 합법 이민자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은 이 개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조언에 따라 기획됐다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로 분열됐던 공화당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십년간 미국 이민법은 가족 단위 이민에 우선권을 부여해왔다. 매년 미국 영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유입을 연 110만명으로 유지하고 가족 단위 이민의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며 대신 일자리를 가진 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며 고숙련 노동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혁안에도 맹점은 있다.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 증가와 같은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림'(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 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련 이슈도 다루지 않는다. 농업 등 특정 계절에 많은 인력을 요하는 산업군이 이민 노동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항도 포함돼 있지 않다.

로이터는 백악관 정책고문들이 이 개혁안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의 이민 제도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 나라들의 고용·기술기반 이민자들의 비중은 △캐나다 63% △뉴질랜드 57% △호주 68% △일본 52% 등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12%에 그쳤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영어에 능숙하고 학위가 있거나 직업 훈련을 받은 이민자들을 우선 받아주게 되면 이들의 비중을 57%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pasta@news1.kr

# 미국서도 실종된 아기 울음소리 출산율 32년래 최저

## 美 지난해 신생아 379만명...32년 만에 가장 적어 "출산율, 절망의 바로미터...젊은층, 미래에 부정적"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작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378만8235명으로, 32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15일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잠정 출산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출산율은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출산율(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전년보다 2% 내린 1.728명으로 사상 최저치다.

이번 CDC 발표는 인구 통계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은 미국 경제의 호조와 고용 증가에 힘입어 출산율이 안정되거나 심지어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인구학자 다월 마이어스는 이에 대해 "국가적인 문제"라며 "출산율은 절망의 바로미터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우리는 불황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렇다면 높은 주거비를 제외하고 그 외 경제적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출산율은 상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 배경에는 암울한 미국의 미래와 정치적 혼란에 대한 젊은층의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CDC 보고서 발표 뒤 많은 미국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육 시설 부족과 높은 보험료, 육아 휴직 및 지원 시스템 부족 등 아이를 갖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열거하고 있다. 아울러 미 경제가 호조를 보여도 근로자들의 급여는 같은 속도로 오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

한 조지아주(州) 상원의원은 "부모들은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알고 있다"며 "아이들(양육)에겐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우리 사회는 이걸 쉽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자 사라 다마스케는 고용 안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66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최근의 대 경기침체(the Great Recession) 때보다도 많은 것"이라며 "실업률이 개선되더라도 기업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마스케는 "실직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을 체념했다"며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가정을 꾸리는 건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NPR은 결혼과 양육 시기를 미루는 미국인들이 늘어났다는 문화적 변화도 출산율 저하에 반영됐다고 "역사적으로 미국에선 20대 여성의 출산율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30대 초반 여성(출산율)이 이를 추월했고 그 격차는 2018년 더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sy@news.kr

#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턴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턴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 조인식까지 준비했던 무역협상 결렬된 진짜 이유는?

## 중국이 먼저 약속 위반... 상황 오판했을 가능성 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9일~10일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이 열리기 한 주 전만해도 미중은 무역협상 조인식을 준비할 정도로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양국은 무역협상 타결 조인식을 할 장소로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라라고를 검토했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협상이 너무 더디다"며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8일 플로리다 주 파나마 시티 유세에서 "중국이 무역협상을 먼저 쟀다"며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입장을 돌변한 이유는 중국이 기존의 약속을 쟀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지적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위의 사항을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해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또 중국에 합의 사항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요약본만 공개하자고 맞섰다.

이외에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과 함께 관세의 일괄 폐지를 원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막판에 끝대를 읊기려



9~10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장관 등과 함께 무역회담을 가졌다.

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문제의 트윗을 날렸다.

이미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류허 부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는 향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류허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9일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90분에 불과했다. 미국은 10일 0시 1분을 기해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이것으로 협상은 끝이었다. 10일에도 양국의 대표는 만나긴 했으나 의의가 없었다.

중국이 막판 강하게 나온 것은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금리인하를 촉구한 것을 두고 중국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좋다고 오판했다. 그래서 약간 대들어 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부양책이 먹힘에 따라 약간의 자신감을 얻게 됐다. 지난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기는 회복국면에, 미국 경기는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오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중이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양국 정상의 직접 담판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 폭스뉴스에 출연,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양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전망했다.

sinopark@news1.kr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 므누신, 미중 무역협상 베이징에서 계속 이어갈 것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베이징에서 수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5일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SAC) 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향후 협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협상은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베이징으로 가서 그런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으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중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양측이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함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은 부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대해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줄 것을 호소하며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다.

acenes@news1.kr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DRAIN & PLUMBING

확

막힌 곳을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김학의 6년만에 구속 범죄혐의 소명·도망 염려

## '1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심사 때 혐의 대부분 부인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과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은 돈 1억원을 포기하

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다. 이밖에 윤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 5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그림, 명절 떡값을 포함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전 검찰 조사와 달리 윤씨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3자뇌물 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사유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별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진술에선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 이번 사건으로 느낀 감정을 말했다고 한다.

son@news1.kr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정보경찰 정치관여 강신명 전청장 구속 이철성은 풀려나

(서울=뉴스1) 서미선, 이유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구속을 피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이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10시40분께 이같이 결정했다.

함께 심문을 받은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전 청장과 함께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보 업무의 특성상 청장을 거치지 않고 직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과 관련해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강 전 청장은 수용자로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 전 청장의 신병만 확보한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곧 풀려날 예정이다.

일부 영장이 기각되긴 했으나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 1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며 이번 수사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반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경찰총수가 정치개입 의혹으로 구속되는 차이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관리행사 방해 혐의로 강·이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관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smith@news.kr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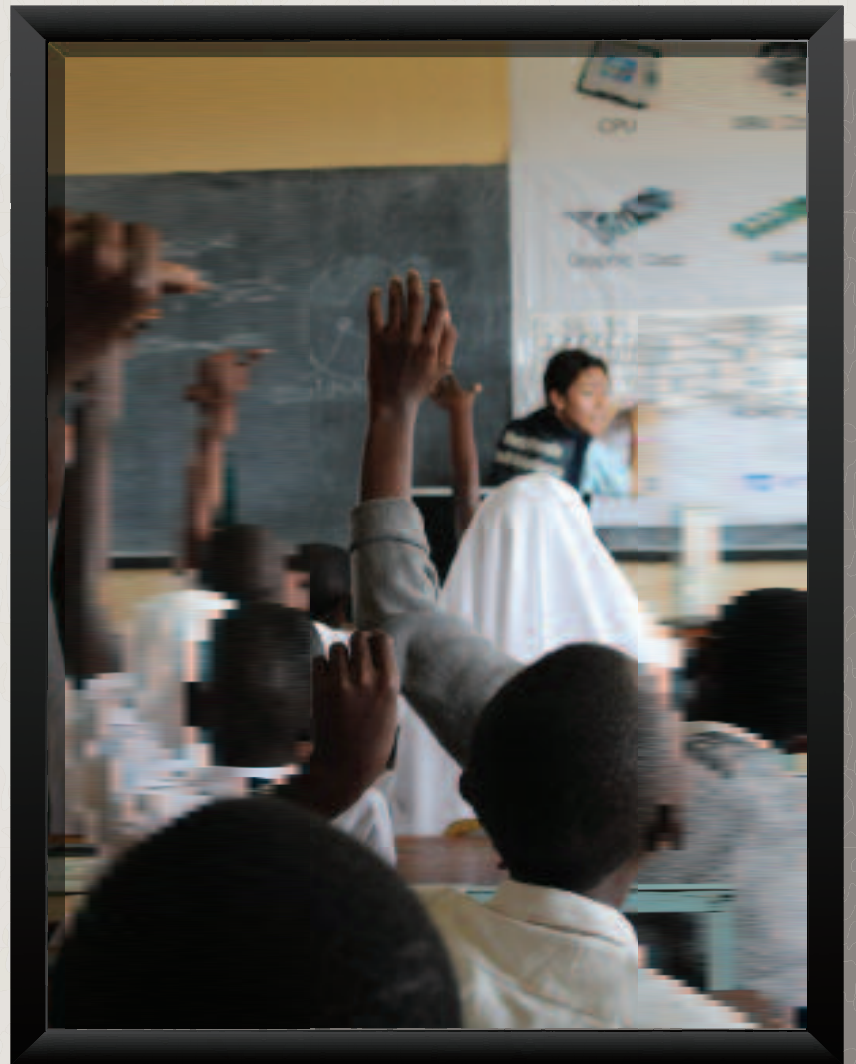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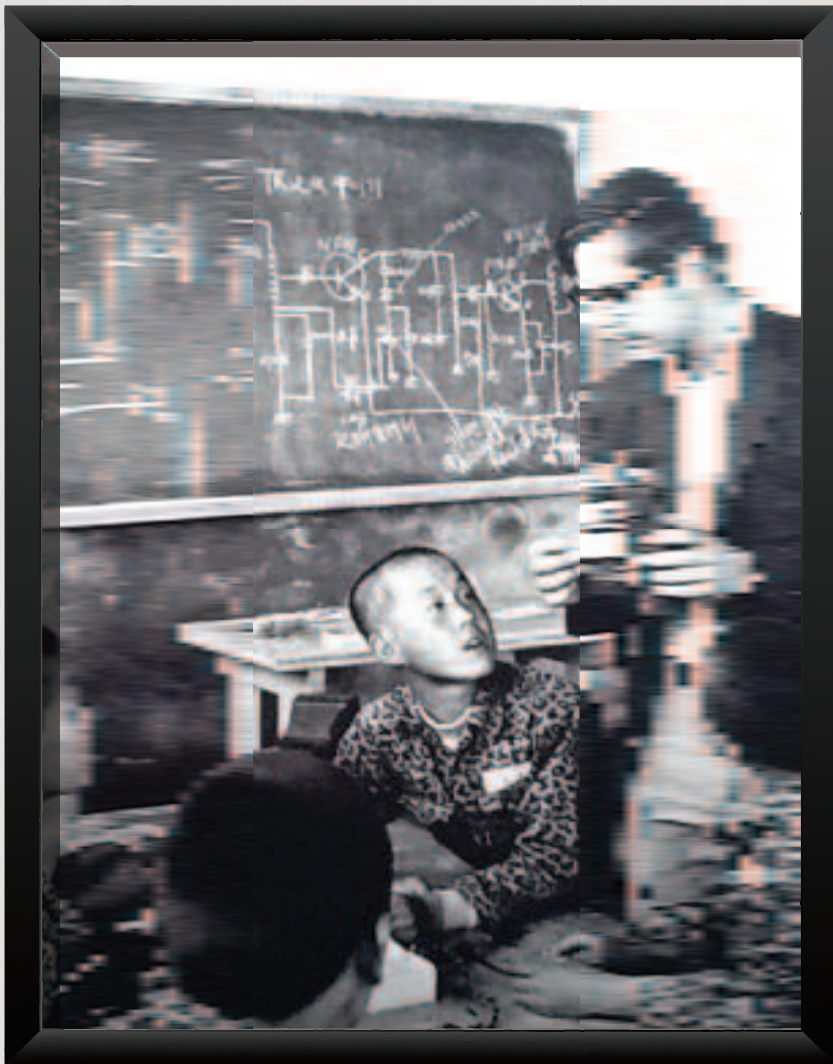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FOK, KOICA 합동 사진전

Photo Exhibition on Volunteerism: Friends of Korea and KOICA



- 제목: Photo Exhibition on Volunteerism: Friends of Korea and KOICA
- 일시: 2019년 5월 28일~31일
- 장소: Massachusetts State House 4층 로비
- 행사내용: 1960-80년대 한국에 파견되었던 한국평화봉사단원(Peace Corps)들의 모임인 프렌즈 오브 코리아(Friends of Korea)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활동 관련 사진 합동 전시
- 후원: 주보스턴 총영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렌즈 오브 코리아(FOK), 매사추세츠 주의회

\* 행사 리셉션은 5.28(화) 2시, Senate Room 428호에서 개최될 예정

# 버닝썬 유착 93회 조사에도, 경찰총장 김영란법 · 뇌물 무혐의

## 접대액 1회 100만원 · 1년 300만원 안 넘어... 일부 자비 부담 뇌물죄 적용도 어려워... "단속-접대 시기 1년 이상 차이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접대' 금액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청문감사가능에만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 클럽 '마'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씨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씨에게 전한 혐의,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인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총장'의 존재는 이른바 '승리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40)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은 방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이 유착된 정황'을 언급한 당일인 지난 3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언급됐으며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김 경감, 신 경장, 윤 총경의 지인, 유씨, 승리 등 50명에 대해 총 93회 조사를 실시했다. 또 윤 총경과 김 경감, 신 경장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월 1일 오전 11시 30분 김 경감이 신 경장에게 '증거 자료로 단속 경찰관 단속 보고서와 내부 사진이 있다'는 메시지와 관련 사진을 전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도 함께 내렸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유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청문가능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이들의 계좌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및 기지국·통화내역 분석 자료 등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윤 총경과 유씨와 식사를 6번, 골프 라운드를 4회 함께했으며,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3회에 걸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접대' 금액의 총합은 2017년 90만9061원, 2018년 177만2391원으로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년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났고, 윤 총경이 골프·식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했으며, 접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별도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가성 인정이 어려워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도 봤다.

한편 경찰은 몽키뮤지엄 전 직원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와 주류회사 대표 박모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는 몽키뮤지엄 단속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류회사가 몽키뮤지엄에 주류를 납품하게 하는 대가로 이씨를 주류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뒤 월급을 준 혐의, 이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향후에도 승리와 유씨의 클럽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단서가 포착될 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타 강남 클럽과 관련된 경찰 등 공무원 유착 수사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오피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확장  
오픈**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 \$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Y 17th - MAY 23rd, 2019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 MINI LENTIL BEAN PANCAKES GLUTEN-FREE PANCAKES! EASY, HEALTHY, AND SAVORY!

영양이 풍부한 렌틸콩을 사용한 글루텐 프리, 꼬마 렌틸콩전! H마트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맛과 건강까지 챙기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CONTACT me@hmart.com](mailto:me@hmart.com)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2.99

**Stem Tomato**  
스텝 토마토  
\$0.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1.29

**Red Seedless Grape**  
씨없는 적포도  
\$1.69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원상본 후지사과 프리미엄  
\$1.79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79

**Pineapple**  
파인애플  
\$2.49

**Lotus Root**  
연근  
\$1.99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6.99

**K TOWN Tofu**  
케이타운 두부  
\$0.99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Tenderloin Whole Piece**  
안심  
\$7.99

**Boneless Pork Shoulder Butt**  
돼지 목전지살  
\$3.99

**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

**Chicken Wing**  
닭 날개  
\$2.49

**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2mm 샤브샤브용 냉동 차돌박이  
\$8.99

**Marinated Slic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고기  
\$6.99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less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 새우  
\$8.99

**Pacific Squid**  
동해산 선동 오징어  
\$5.99

**SUNHUP Yellow Tail**  
수협 방어  
\$1.99

**BANTRY BAY Mussels in a Tomato/Garlic Butter Sauce**  
토마토/갈릭 버터 홍합  
2\$6

**TONGTONGBAY Dried Regular Sliced Squid**  
통통배 배진미 오징어치  
\$8.99

**Skate Wing**  
꽁어  
\$3.99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AGA YAKI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23.99

**I WANT Paper Towel**  
\$10.99

**HAIOREUM Yellow Croaker**  
\$12.99

**OTTOGI Jin Ramen**  
\$9.99

**CJ Cooked White Rice**  
\$10.99

**HAIOREUM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3.99

**DANYA Soba Sauce**  
\$3.99

**Chonji Soup Stock for Cold Noodles**  
\$4.99

**NONGHYUP Aslan Apricot Tea**  
\$18.99

**HAIOREUM GOMPYO Wheat Flour**  
\$3.99

**CHORIPONG Roasted Grain Powder**  
\$5.99

**S2B Golden Curry Sauce Mix**  
\$2.99

**BEYOND THE OCEAN Small Octopus (Sliced)**  
\$10.99

**CHORIPONG Seasoned Wild Fish**  
\$6.99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2019. 6. 1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우선시 명사는 2019. 6. 29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참가비: 접수지에 의해 Email로 제공시 받는다.  
장소: Overpeck County Park Amphitheater (Wedgefield Park, NJ 07060)  
접수기간: 2019년 4월 12일(금) - 2019년 5월 26일(일)까지 접수

**떡**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HAIOREUM Canned Beal Top Shell**  
\$4.99

**CROWN Corn Chips**  
\$2.5

**HELLO Flat Top + Bucket Set**  
\$22.99

**Nickel Silver Pot**  
\$5.29

**VT COSMETIC VT x BTS**  
\$4.99

**VT x BTS 콜라겐 마스크**  
\$29.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www.hmart.com](http://www.hmart.com)

#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TF 압수수색, 이재용 최측근 포함

## 정현호 TF사장 사무실도...檢 '윗선지시' 정면 겨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정 사장 사무실을 포함한 TF 고위 임원 사무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특별 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인 지난해 중순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관련 자료가 조직적으로 은닉·폐기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임원들의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인 정 사장을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 TF는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휘·실행한 혐의로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 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했다. 백 상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증거인멸과 관련해 보안서버 관리직원 안모씨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상황이다.

지난 8일 구속된 안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을 묻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또 양 상무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인 지난달 말 마루 아래 묻은 증거를 다시 꺼내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양 상무와 이 부장 역시 비슷한 시기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당서가

될 만한 자료나 'JV' '합병'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선별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안씨는 백 상무 등 사업지원 TF 측 요구로 자신이 개인 판단으로 서버를 숨겼으며 거짓 증언을 했다고 검찰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

멸과 사건의 분류인 분식회계 의혹이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수사는 '윗선'으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정 사장 등 고위 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kukoo@news1.kr

# 이재명 1심 '무죄'... "친형 강제진단 정당, 직권남용 아냐"

## 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李 지사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도민들에게 큰 성과로 보답"

(성남=뉴스1) 진현권, 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언했던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업무 역량 안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허위사실공표 부분

에 대해서는 제한된 토론회 시간 내에 '구정신보건법'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에 대해 재판부는 "성남시가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익금 5503억원을 특정 용도에 사용한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김포 유세현장에서 '썼다' 사용했다라는 등으로 시제 표현을 과거형으로 사용했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지난해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은 2002년 당시, KBS 소속 PD 최모씨와 함께 사무실에 있어 도와줬다는 누명을 쓴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해명을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공방 토론회에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고 이재명씨) 강제진단'에 대해 재판부는 재선씨가 정 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협이 있었고 2012년 성남 시청 공무원을 통해 구정신보건법 제 25조에 의한 강제진단 절차를 무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당시 분당구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센터를 통해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위한 검토가 가능한지의 지시 또한 강제성을 띠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진단' 혐의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김영환 후보가 토론회에서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냐'는 질문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의혹"이라며 "마찬가지로 토론회에서 짧은 토론시간에 공방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취지를 밝히기에는 어려웠을 자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의 1심 선고 이후 이 지사는 법정에서 빠져나와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냥 맡기겠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말을 믿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oo@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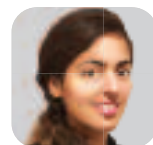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센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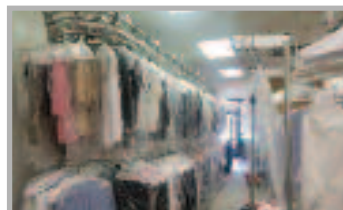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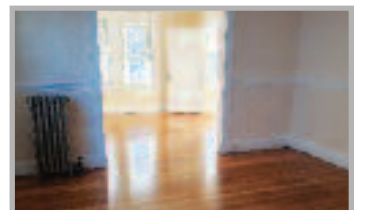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된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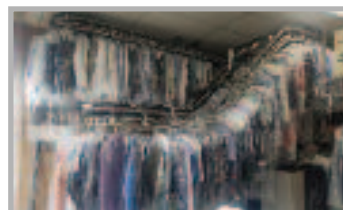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 김용장 전 미 정보요원 광주항쟁 역사 지금부터 다시 써야

## 전두환 광주행 · 헬기사격 등 40건 정보보고 보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 미국 육군 501정보단 요원인 김용장씨는 14일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5·18증언회'에 참석해 "광주라는 말만 나오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당시 미 육군 방첩부대인 501정보여단 광주과견대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그는 "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항쟁기간 동안 40여건의 보고서를 썼다"며 "그 40건의 보고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잘해야 1년 동안 쓸 수 있는 보고서의 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씨가 광주에 헬기를 타

고 내려온 것, 도청 앞 헬기사격 사진, 5·18편의대가 들어와 광주시민들의 폭동화 시킨 것, 시신을 재발굴해서 화장처리한 사진, 교도소 습격사건, 공수부대에 의해 성추행 당한 사건 등 40여건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며 "그 사실을 전부 제가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편의대는 적지에 들어가 몰래 활동하던 임시특별부대를 말하며 무장을 하지 않고 주민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첩보·정보수집, 선동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지칭한다.

또 "최근에 미국 국방성에서 나온 정보보고서를 제가 직접 읽었다. 제가 보낸 그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삭제되지 않는 원형 그대로의 보고서

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제가 39년 동안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501정보여단에서 사표를 낼 적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각서보다 광주에 대한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증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써져야 한다"며 "이제까지 역사는 올바르게 써진 역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시기다"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5·18 증언회에서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단 요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증언회에서는 김 전 요원과 허정환 전 505보안대 요원이 발언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실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주시민들이 있는 동안 그 일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언회에는 김씨와 함께 허정환 전 505보안대 요원, 5월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junwon@news1.kr

## 5·18 때 광주시민 위장한 편의대가 선동·폭력 조장

### 김용장 "유언비어 유포, 사실 날조" 허정환 "전두환 '총성일지'서 자인"

(광주=뉴스1) 한산, 허단비 기자 =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증언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군인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폭력을 조장했다'는 '편의대' 관련 증언도 나왔다.

전직 미국 정보요원 김용장씨는 "항쟁이 일어난 열흘 동안 쓴 40개 보고서 중에는 편의대가 광주 시민들을 폭동화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5·18 당시) 모든 것이 자기들(신군부)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며 "편의대가 광주 시민들을 선동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광주 시민들은 무기를 스스로 반납하거나 소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열흘 동안 금은방이나 은행이 털린 사건이 단 1건도 없었다. 세계적으로 수준 높다는 미국에서도 두 시간 정전되면..."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편의대가 15일 또는 20일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들어왔다고 했다.

김씨는 "광주공항 격납고에서 머리가 아주 짧은 20 후반~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과 남마를 걸친 다른

한 사람을 봤다"면서 "나중에 정보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실을 날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에는 편의대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어 보고서에는 3~4줄 정도만 적었지만 편의대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함께 증언회에 참석한 전 505보안부대 요원 허정환씨도 편의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허씨는 "보안사령부는 '총성일지'라고 하는 비망록을 쓰게 돼 있는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총성일지를 보면 '광주일고 출신 홍도 대령을 (편의대) 대장으로 광주에 보냈다'라고 돼 있다. 이는 전씨가 (편의대 존재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편의대는 본디 인민군 복장으로 적 후방에 침투해 적을 교란하거나 적 지휘부를 암살하는 공수특전단원들을 일컫는다"라면서 "청문회 당시 정호용 특전 사령관이 무심결에 '우리 대원들 편의복 가져다 주러 갔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편의복이 뭘지 묻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san@news1.kr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5·18 증언회에서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단 요원과 허정환 전 505보안대 요원이 발언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실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찬성 60.6% vs 반대 30.3%

### 리얼미터 501명 조사...한국당 지지층 73.9% 반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6%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3%, 모르거나 무응답은 9.1%로 나타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2일 대표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166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5.3%, 중도층 62.4%, 보수층 29.8% 순으로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층의 경우, 57.5%가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98.1%, 더불어민주당 88.5%, 민주평화당 73.7%, 바른미래당 45.7%, 자유한국당 18.6%가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층은 73.9%가 법 제정에 반대한 반면 정의당 지지층의 반대는 0%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 82.4%, 광주·전라 75.2%, 경기·인천 65.5%, 대구·경북 59.1%, 서울 58.7%, 부산·경남·울산 53.2%, 대전·충청·세종 50.7%, 강원 44.0% 순으로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40대 72.2%, 50대 65.9%, 30대 64.9%, 20대 59.7%, 60대 이상 45.7%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4%다.

asd123@news1.kr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휴람 네트워크

# 기미 및 난치성 색소 치료하는 '지우개 멀티토닝' 특성과 효과는?



휴람 네트워크 피부과 원장은 겨울철 깨끗한 피부 만들기 위해 이렇게 설명한다.

가벼운 주근깨나 잡티의 경우 깊이가 깊지 않고 표피에만 색소가 존재하므로 IPL이나 간단한 레이저 치료만으로도 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드름 자국이나 기미 등 까다로운 색소병변이 주근깨·잡티와 섞여 있다면 한 종류의 레이저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어렵다. IPL 후 잡티는 없어졌지만 기미가 더 심해지거나 레이저 토닝 후 기미는 열어졌는데 표피의 잡티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치료 실패 사례이다.

기미를 비롯한 난치성 색소치료를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지우개 멀티토닝' 기술은 이런 피부 상태에 진가를 발휘한다. 우선 기미와 난치성 색소병변, 여드름 자국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분한 다음 환자 개인의 피부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의 조합과 세부적인 시술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세계 최초 FDA, KFDA 승인을 받은 레이저 기기, 피코슈어레이저 기기를 통해 시술되는 피코슈어레이저 기술은 일반 토닝 모드, 포커스 모드, 지우개 모드, 문신제거 등의 시술 모드로 주근깨, 기미, 여드름 흉터 제거, 모공 축소, 잔주름 개선, 톤업, 문신제거를 돕는다.

피코슈어레이저 기술은 색소질환을 세포 손상 없이 안전하게 파괴해줘 주변 조직 손상의 부담이 없고 1회 발사하는 시간이 1억분의 1초인 타 레이

저(Q-switched)와 달리 1회 발사하는데 1초분의 1초가 소요되기 때문에 강하고 빠른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만큼 시술 횟수 역시 단축할 수 있으며 회복기간이 짧아 직장인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지우개 멀티토닝'은 다양한 색소치료 레이저들 중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3가지 정도의 조합을 결정한 뒤 맞춤형으로 시술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한 가지 레이저로 치료하는 것에 비해 1회 시술로 얻을 수 있는 개선 효과가 더 크다.

또한 기존 레이저가 개개의 색소병변을 개선시키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우개 멀티토닝은 개별 색소뿐 아니라 얼굴의 전반적인 피부톤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색소레이저뿐 아니라 혈관레이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붉은 여드름 자국이나 혈관성 기미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안면홍조와 혈관확장에도 효과가 좋다.

지우개 멀티토닝은 일반적인 레이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건조해지는 등 부작용이 거의 일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직장인들에게 특히 호응을 받고 있

다. 시술 후 일상생활에 특별한 문제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지우개 멀티토닝 프로그램은 개인의 피부 상태에 최적화된 메디컬스킨케어 재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피부노화 방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지우개 멀티토닝은 색소의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 복합 레이저 시술로 이루어진다. 피부의 손상 없이 색소 병변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피부톤과 홍조도 개선하는 것이 장점" 이라고 했다.

이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피부과 전문의가 색소병변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원인에 맞게 정확한 치료를 시행해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대표 시술" 이라면서 "이런 기미나 잡티, 주근깨 등의 색소질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치료를 위해 토닝 시술을 받길 원한다면 전문가가 있고, 시술 전 후 관리 체계를 잘 갖춘 피부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보다 겨울에 오히려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와 습도가 예민한 피부에 선사하는 이 원치 않는 여드름은 여름철 여드름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발생한다. 건조함으로 인해 모공 입구에 각질 플러그가 쌓여 발생하는 겨울철 뾰루지는 붉은 자국에 이어 거무튀튀한 착색을 유발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하여 기본적인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드름 자국은 빨리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어 피부의 칙칙함을 심하게 한다. 이 여드름 자국은 여름 동안 쌓인 기미·주근깨·잡티 등과 섞여 피부의 톤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안 그래도 칙칙한 건조 피부에 기미·주근깨·잡티와 여드름 자국들이 섞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도 피부가 건강해 보일 리 없다. 겨울철 색소 문제없는 무결점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 금주의 LISTINGS

 <p>보스톤 북쪽 세탁소 매매 30년 이상된 대형 물안에 위치. 고정 고객과 안정된 매출. 하이드로카본. Full plant.</p> <p><b>ASKING \$19,9500</b></p>	 <p>보스톤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b>ASKING \$99,000</b></p>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톤 남쪽</p> <p><b>ASKING \$480,000</b></p>
 <p>보스톤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b>ASKING \$160,000</b></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b>ASKING \$150,000</b></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amp; Spa</p> <p><b>ASKING \$375,000</b></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b>ASKING \$130,000</b></p>	 <p>보스톤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b>ASKING \$170,000</b></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b>ASKING \$200,000</b></p>
--	--	--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 미국 명문 대학 입학 결과 분석 (Class of 2023) (1)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결과도 3월말로 끝나고 주변 많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결과를 듣고 축하도 하고 놀라고 걱정도 되는 입학 결과의 해였다. 올해 입학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격적이다”가 어찌보면 더 정확해 보인다. 최근 며칠간 수백명의 미국 대학 입학 컨설턴트들과 그룹 대화를 통해 이는 결코 한국 학생들만이 아닌 미국 학생들도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 앞으로 어떻게 입시 방향을 잡고 지도 해야 하는지를 대학이 제시한 해라고 볼수 있다. 학교별 입학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앞으로 준비 해야 하는지를 깊게 살펴보기로 하자.

###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장인 윌리엄 피츠시먼스(William Fitzsimmons)에 따르면 “독특한 경험들과 재능들을 가진 합격생들이 미래 하버드와 우리 사회를 위해 확실히 공헌 할수있는 학생들을” 뽑았다고 한다. 올해 총 43,330명이 지원해서 정시(Regular)에서 1015명이 조기 입학(Single Choice Early Action)에서 935명이 총 6,958명중에서 합격하였다. 결국 조기와 정시 모두 합하여 총 1950명이 최종 합격되었다. 이는 지난해(42,749)보다 지원자들이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생은 감소한 수치로 하버드가 공격적인 학생들 리쿠르트와 재정보조 정책으로 합격생들 대부분이 최종 등록 할거라는 확신에서 뽑은 수치이고 가능한 대기자까지 가서 다시 평가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는 의도도 있다. 참고로 지난해 총 1962명이 합격되었다.

올해 합격생들중 20%는 전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하버드에서 이 학생들에게는 \$2000정도 이사 및 정착 비용을 제공해줄 계획이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세계 89개 국가에서 입학 허가되었고, 외국 국적 학생들 12.3%, 미국 이중 국적 8.9%, 중부 대서양주 21.7%, 남부 19.6%, 서부 17.3%, 뉴잉글랜드 16.6%, 중서부 11.8%, 해외 미국령 출신들이 13% 입학 허가 되었다. 특이한점은 미국 남부 지역 출신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합격이 증가했다. 남녀 비율로 보면 거의 동일하나 남자 50.2%, 여자 49.8%가 입학허가되어 최근 여학생들 강세에서 올해는 남학생들 조금 더합격했다. 참고로 조기 합격자들중 여학생 51.3%로 남학생에 비해 1.3%를 더 뽑았다.

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합격생들중 흑인 14.8%, 라틴 12.4%, 아시아인 25.4%, 하와이언 0.6%, 인디언(Native

American) 1.8%, 그리고 백인 45%가 합격을 했다. 아카데미 흥미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컴퓨터 전공 11.6%, 사회 과학 분야 5.1%, 인문계 4.2%가 증가하였고 아시아계 미국인 5.1%, 라틴계 학생 3.4% 지원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가족중 처음 대학을 지원한(First Generation) 지원자들도 13.8%나 증가하여 어느 하나 감소한 수치가 없어 하버드 입학 담당자들이 무척 다양성, 전문성, 공헌도, 리더십, 잠재력, 그리고 지역적인 배분까지 고려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선택했다.

### (예일 대학교)

예일은 두개의 거주 칼리지를 3년전에 완공하여 매년 입학 학생들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재정보조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인 걱정없이 학교 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 보다 우수하고 유능한 학생들 리쿠르트를 하고 있다. 올해 조기 지원자 총 6,016명중 794명이 합격하였고 정시 지원자 30,827명중 1,380명이 입학하여 총 36,843명이 지원하여 2,178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입학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여 새로 완공된 두개의 거주지 칼리지를 채우고 있어 아마도 내년까지만 예일이 계획한 균형있는 학생들 수를 모두 채울것이라 예상된다.

예일은 하버드와 비슷하게 엄청난 재정보조 혜택, 지역 요소, 부모의 경제력, 다양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학을 결정하였다. 올해 50개주, 63개 국가, 그리고 1400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생들을 배출하였다. 물론 소수민족과 가족중 처음으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학은 어떠한 한요소를 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예일의 경우는 학생이 예일 대학에서 중요한 리소스가 될 수 있는 학생인지와 예일 대학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수 있는 학생인지를 판단하여 주의 깊게 학생들 원서를 읽고 입학을 결정 한다.

###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역시 재정보조 혜택을 다양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한 해였다. 올해 총 32,804명이 지원하여 총 1,895명이 입학허가되었고, 대기자는 902명이다. 프린스턴이 예상하는 신입생 적정 규모는 12%명이다. 총 161개 국가에서 10,813개 고등학교에서 지원하여, 최종 합격자 1,895명으로 조기 전형 총 지원자 5,335명중 743명과 정시 전형 총 지원자 27,469명중 1,152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전체 입학률은 5.77%으로 당분간 더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좋은 소식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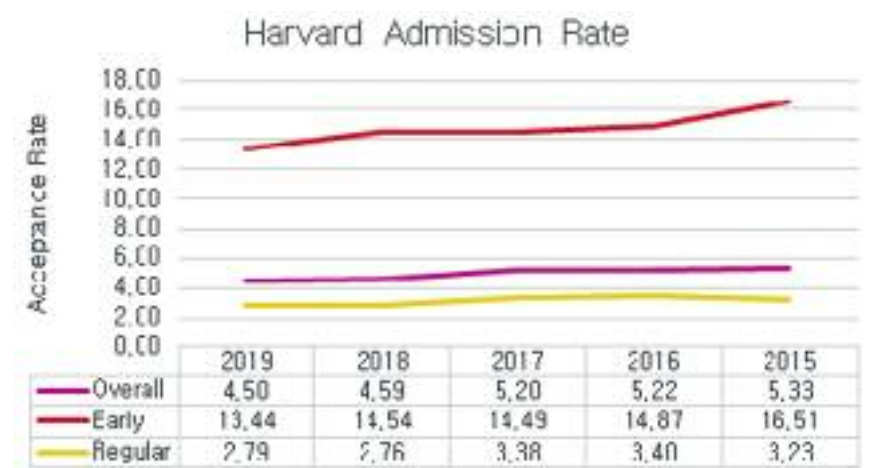
년 부터 프린스턴은 4년간 매년 125명씩 총500명 정도의 학생을 증가할 계획이 있어 현재 10학년부터 기회를 더 가질수 있다.

입학 허가된 학생들을 보다 깊게 살펴보면, 1) 남자 48%, 여자 52% 2) 유색인종 56%, 백인 44% 3) 공립 학교 63% 4) 레가시(Legacy) 11% 5) 엔지니어 전공 23%, 인문학 15% 등으로 많은 대학들이 엔지니어 전공자들을 더 많이 뽑았고 동시에 지원자수도 많아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프린스턴의 경우는 분배 커리큘럼(Distributional Curriculum)으로 많은 지원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관련 어느정도

확신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 막연히 전공을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인문학, 엔지니어링등의 큰 부분에 대한 흥미를 보이면서 깊이 있는 경험과 다양한 학업 경험을 균형있게 배운 학생들을 선호 한다. 물론 학생이 학교를 위해 어떻게 공헌할지도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엄청난 펀드로 재정보조 확대와 다양한 리쿠르트 방법으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동시에 이들이 프린스턴을 위해 공헌하고 추후 사회에 나와 프린스턴에서 배운 교육을 실천 할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리쿠르트한 해였다.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941-9900
전화신청 (Verizon)	617-555-1515
전화공정고 (Verizon)	617-343-4475
택시	800-222-4357
AAA	617-741-5533
FBI	800-392-6100
MBTA	800-572-9300
NSTAR가스	800-592-2000
NSTAR 전기	800-746-4726
RCN케이블TV/전화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한국학연구소(한학)	978-407-7554
국제한국학연구소(한학)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주세주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력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기업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한미)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617-792-8780
그리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론교회	617-792-8780
그리랜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리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617-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말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운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0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42-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 불교

민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도 법회	617-977-4227

###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정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퍼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런스	617-799-6158

###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 / 진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 헤어디자인	508-786-7675
프로페셔널 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 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켄넬리스	617-2026261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빙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아이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Paul of Tarbes Parish of Boston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에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인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보좌관' 이정재, 권력 정점 슈퍼 보좌관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보좌관' 이정재의 첫 스틸컷이 공개됐다. 권력의 정점에 도전하는 수석 보좌관 장태준으로 완벽 변신한 아우라와 독보적 비주얼이 다가올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6월 첫 방송 예정인 JTBC 새 금토드라마 '보좌관'(극본 이대일/연출곽정환)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리얼 정치 플레이어들의 위험한 도박, 권력의 정점을 향한 슈퍼 보좌관 장태준(이정재 분)의 치열한 생존기, 배우 이정재를 비롯해 연기파 배우들의 대거 포진으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보좌관' 측이 극중 캐릭터로 완벽 변신한 이정재의 첫 스틸컷을 전격 공개했다.

경찰대를 수석 졸업했고 수사대에서 활약했지만,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국회로 들어간 4선 의원 송희섭(김갑수 분)의 수석 보좌관 장태준. 그는 뛰어난 직관과 냉철한 판단력, 승리를 향한 집념과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집요함, 어떤 상황도 감수하며 날카로우리만큼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는 능력으로 송희섭의 신임을 받는다. 하지만 그의 가슴엔 더 큰 야

망이 끓어오르고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차가운 이성으로 이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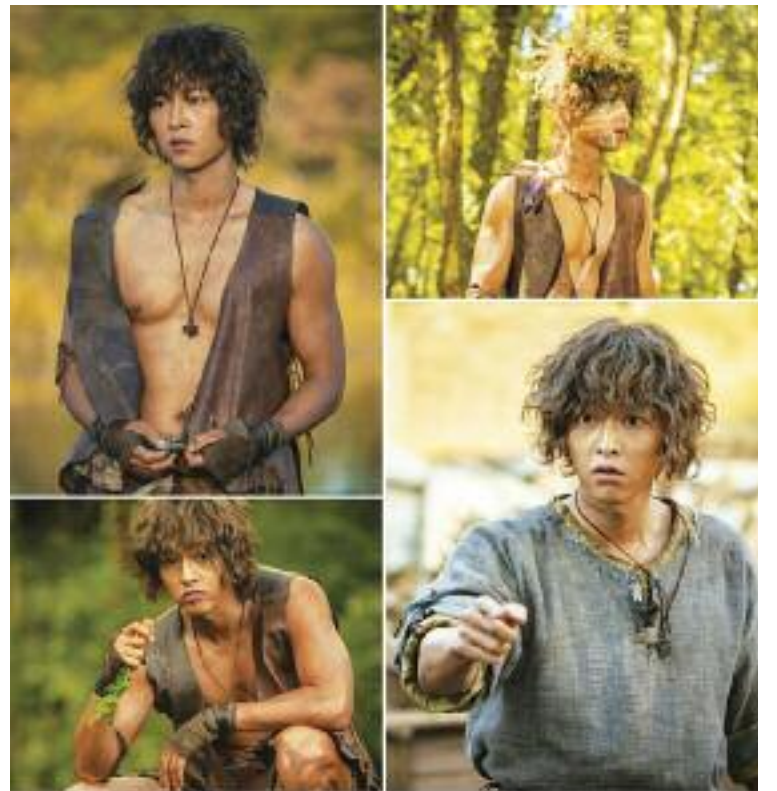
이 가운데 8일 공개된 스틸컷 속 장태준으로 완벽하게 스며든 이정재가 눈길을 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는 현장을 여유로운 분위기로 감싸고 있다. 하지만 그 미소 사이에 숨겨진 흔들림 없는 눈빛은 자신감과 유연함을 갖춘 캐릭터 그 자체다. 이정재가 그릴 장태준이 이미지만으로도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이는 섬세한 캐릭터 분석을 통해 이정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제작진은 "배우 이정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으로 장태준

캐릭터를 완성해가고 있다. 현장에선 이미 장태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다. 법과 선의의 가장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뜨거운 활약을 보여줄 이정재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보좌관'은 '미스함무라비' 'THE K2' '추노'를 연출한 곽정환 감독과 '라이프 온 마스' '싸우자 귀신아' '털집필한 이대일 작가, 그리고 '미스함무라비' '뷰티 인사이드'를 통해 연타석 흥행에 성공한 제작사 스튜디오앤뉴 등 믿고 보는 제작진의 만남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다. '아름다운 세상' 후속으로 오는 6월 JT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ichi@news1.kr



# '역대급 변신' 송중기 "아스달연대기 신비롭고 경이로워"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tvN '아스달 연대기' 송중기가 시놉시스부터 신비롭고 경이로운 느낌에 빠져들었던, 뜻깊은 출연 소감을 전했다.

오는 6월1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새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극본 김영현 박상연/연출 김원석)는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 이야기를 담는다.

송중기는 아사훈(추자현 분)의 아들

이자, 탄야(김지원 분)가 속해있는 와한족 일원으로 자라난 은섬 역을 맡았다. 극중 은섬은 사람인 아사훈과 뇌안탈 사이에서 태어난 이그트(사람족과 뇌안탈의 혼혈)로 와한족 사이에서 살아왔지만 남다른 용모와 능력, 성격을 지니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던 인물. 베일에 싸인 비밀스러운 운명으로 극을 이끌어간다. 오는 6월1일 첫 방송.

ichi@news1.kr

5월 19일 - 5월 25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자극제로 여겨야</b></p> <p>●운수: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도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원기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금전: 무엇이든지 새로이 얻고자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소띠   큰 행복감과 즐거움</b></p> <p>●운수: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주니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본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금전:그동안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애정: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범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b></p> <p>●운수: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애쓰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금전:바라는 만큼의 수입이 아니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애정: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토끼띠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여야</b></p> <p>●운수: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전: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애정:애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용띠   흥가분한 마음으로</b></p> <p>●운수: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흥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3,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뱀띠   생각을 바꿔서 보면</b></p> <p>●운수: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저런 공리를 하게 됩니다. ●애정:한번 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5일 주의.</p>
<p><b>말띠   희망의 끈을</b></p> <p>●운수: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금전: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마음이 가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5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양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b></p> <p>●운수: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금전:얼마나 느긋하게 잘 참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애정:어찌 보면 자랄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행해주는 마음에서 서로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1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원숭이띠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b></p> <p>●운수:남에게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금전: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얻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격이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5일 주의.</p>
<p><b>닭띠   이해하는 시선으로</b></p> <p>●운수: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금전:남을 믿고 맡기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면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0일 길일, 21, 25일 주의.</p>	<p><b>개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b></p> <p>●운수: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필요를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드세요. ●금전:급히 서둘러 일처리를 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집니다. ●애정: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허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3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돼지띠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b></p> <p>●운수:자신의 몸을 가abei 여기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금전:욕심만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애정: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4일 길일, 20, 23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플리마켓 보조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508-863-6208

벨몬트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함께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781-860-0171

##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 '찰떡콤비' 이수근x은지원 → 정형돈x데프콘, 단짝 총출동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JTBC신규예능 프로그램 '찰떡콤비'가 국내 최고의 단짝들과 함께 추억 속 '콤비 전쟁'을 펼친다.

오는 6월 처음 방송되는 '찰떡콤비' (기획 성지경, 연출 홍상훈)는 단짝 친구와 함께 동네를 누비며 즐거웠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다양한 추억의 게임과 토크를 즐기는 '뉴트로(New-Retro)' 버라이어티다.

'찰떡콤비'는 나 혼자 밥을 먹고 생활하는 문화로 소통의 부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어릴 적 동네 단짝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놀이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8090 감성과 향수, 나아가 밀레니얼 세대와의 공감을 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함께 할 국내 최고의 단짝 네 팀도 출연을 확정 지었다. 먼저 극한 예능에서 단련된 완벽한 호흡의 '예능 브

라더스' 이수근과 은지원이 팀을 이룬다. 함께 있을 때 존재감도 무게감도 배가되는 11년 차 '동반자' 정형돈과 데프콘도 팀으로 합류했다.

개그계에서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20년지기' 이용진과 이진호는 '꿀잼 콤비'로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비주얼은 기본, 숨겨진 입담으로 예능계 접수를 노리는 '배구계 원조 꽃미남' 김요한과 문성민 콤비도 전격 합류했다.

'찰떡콤비'는 '웃음 보장' 함께 하기만 해도 관심을 불러 모으는 연예계 대표 콤비 세 팀과 예능에서 함께 보기 어려웠던 훈남 배우선수 콤비까지 한 자리에 모아 진정한 '찰떡 케미'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찰떡콤비'는 오는 6월 처음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 유재석x조세호 '유퀴즈온더블럭', 25% 자체 최고 경신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유퀴즈온더블럭'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방송된 tvN '유퀴즈온더블럭' 18회 시청률은 평균 25%, 최고 28%(이하 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플랫폼 기준)를 나타내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2049 타깃 시청률은 평균 18%, 최고 20%로 케이블 및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지난 방송에서는 '큰 자기' 유재석과 '아기 자기' 조세호가 서울 관악구로 사람 여행을 떠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만났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만나 입시 준비과정과 현재의 고민을 들어 보고, 고시촌의 역사를 함께 해 온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소박한 웃음을 선사했다.

seunga@news1.kr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빌과 스티브

빌은 디지털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gates)을 우리에게 선사했고, 스티브는 디지털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일자리(jobs)를 선사했다. 참 멋진 사람들이다. Bill Gates가 다른 이름이었다면, Steve Jobs가 다른 이름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름값은 못했겠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일찍이 셰익스피어는 장미가 장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똑같이 향기롭다고 하지 않았던가? 왜 하필 로미오는 로미오란 이름이라, 줄리엣은 줄리엣이란 이름이라, 두 원수 집안에서 태어났던 말인가? 다른 이름이었다라도 똑같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말이다.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이름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유머가 생각난다. 천국에 (혹은 지옥에) 먼저 간 스티브 잡스에 게 그곳은 어떻게냐고 빌 게이츠가 물었다. “헤이 빌, 이곳엔 벽이 없다네.” “그래서?” “그래서 창문 (windows)도 필요 없고 대문 (gates)도 필요 없지.” 그렇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온 컴퓨터 세계에서는 windows도 쓰지 않고 키보드란 gates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응수했다. “거긴 일자리(jobs)

도 필요 없지만 단 한 가지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무슨 법?” 다시 이어지는 빌 게이츠의 응수. “절대로 사과(apple)를 만지면 안 되지.” 아쉽게도 잡스가 뭐라고 대꾸했는지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어쩌면 클라우드(iCloud)에 앉아서 빌에게 대꾸할 말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Steve Jobs는 미국사람이라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 발음하지만 영국영어에서는 job이 [잡]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미국영어를 배우지만 영국영어식도 함께 알아둘만 하다. British English 즉 영국영어는 어딘가 모르게 고급진 이미지를 주고 상류층다운 착각을 심어 준다.

대표적인 발음차이가 바로 모음 /o/의 발음이다. 미국영어에서는 [a]에 가깝지만 영국영어에서는 [o]에 가깝다. 따라서 not, got, job, top 등은 영국영어에서 [놏, 궉, 줍, 톱] 등으로 발음된다. Do you need a job?은 [두 유 니드 어 줍]이라 들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영어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모음 /o/를 대개는 [a]에 가깝게 발음하지만, 또 don't는 [돈티라] 발음하지 절대로 [단티라] 발음하지 않는다. Boston을 [바스틴]이라 발음하다가도 Demi Moore는

또 [드미 모어]라 발음한다.

영국영어에서는 철자 “a” 를 [a]로 발음하는데 비해 미국영어에서는 [æ]로 발음한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영어는 16세기의 영국영어 발음을 유지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ask, pask, fast, cast 등을 미국영어에서는 각각 [æsk], [pæst], [fæst], [kæst]라 발음하는데 비해, 영국영어에서는 [ask], [past], [fast], [kast] 등으로 발음한다.

호주사람들은 영국영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국영어식 발음을 한다. 게다가 호주 사람들은 영국 동부해안의 발음을 받아들인 관계로 /ei/를 [ai]로 바꾸는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name을 [neim]이 아니라 [naim]으로, inspiration을 [inspiréiʃən]이 아니라 [inspiraiʃən]이라 발음한다. Gates는 [geits]가 아니라 [gaitts]가 된다.

호주영어를 관한 우스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발음에 관한 것이다. I came today.란 문장에서 today는 미국영어에서 [tudei]이지만 호주영어에서는 [tudai]이기 때문에 마치 I came to die로 들린다는 것이다. 오늘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단 문장으로 들리는 것이다.

1986년에 만들어진 호주의 코믹 영화 <Crocodile Dundee>는 폴 호건의 멋진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영어학자들에게는 호주영어를 흠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okay는 [oukai]로, way는 [wai]로, good day는 [gud dai]로, exaggeration은 [ɪgzædʒəreɪʃən]으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추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안마의자는 체형에 알맞는 제품인지, 생산회사가 어디고, 몇년된 회사 제품인지, WARRANTY 내용 및 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세요!

• 무료 딜리버리 + 완벽한 설치 + 최고의 서비스 • 전문 기술자 상주 최대 5년 워런티 실시

#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HiTRONS MOTHER'S DAY SPECIAL SALE

★ 각 제품별 선착순 20명 일시불 구입시 선물지급 ★ 세일기간 5/30/2019

**NEW DREAMWAVE M8**



**\$166/월**  
60m + Tax

**POSITIVE POSTURE BRIO**



**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SOL 안마의자 무료증정 \$2000 상당

**\$104/월**  
48m + Tax

**Panasonic MAJ7**



**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

**\$166/월**  
60m + Tax

**Panasonic MA73**



**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

**\$142/월**  
48m + Tax

**BODYFRIEND REX L+**



**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

**\$155/월**  
48m + Tax

**BODYFRIEND PHARAOH**



**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

**\$155/월**  
48m + Tax

**Orest OS5000**



**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

**\$114/월**  
48m + Tax

**FUJIIRYOKI FJ7900**



**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

**\$148/월**  
36m + Tax

60년 전통 아메리 **名品** 매그니플렉스 침대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60년 전통의 아메리 명품 침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컬렉션

<b>DOLCE VITA COLLECTION COMFORT DUAL TO FIRM</b> \$61/월 (36개월)	<b>SUPREMO COLLECTION DAMANTE DUAL 14</b> \$106/월 (36개월)	<b>MAGNISTRETCH 12</b> \$79/월 (36개월)	<b>MOTION BASE</b> \$142/월 (36개월)
--	---	---	--------------------------------------

다 같은 LED 마스크가 아니다  
**셀리턴, 왜 효과가 뛰어날까요?**

**LED 개수**  
120개의 LED와 800개의 LED가 동시에 켜지는 효과

**기술력**  
특허받은 유해 자외선 출력 차단용 LED 모듈 기술은 셀리턴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진화력**  
본인의 피부상태에 따라 기능 극대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된 유산균 및 천연가향

**하루 20분**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세요!

**HiTRONS 셀리턴 입점기념 스페셜 가격**

★ 선착순 20명 ★ 기간 05/30/19년까지

28개월	24개월	일시불
<b>\$53.99/월</b> 36개월 + Tax	<b>\$70.99/월</b> 24개월 + Tax	<b>\$1,699</b>

HiTRONS Gold Member \$100  
HiTRONS GOLD MEMBER 특별혜택 \$100 Gift Card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b>NJ Main Branch</b>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Bethel Health - NY</b>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Bethel Health - NJ</b>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b>PA Branch</b>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b>MD Branch</b>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b>Mattress- NJ</b>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	--	---	--	---	---

# 신영의 세상 스케치

695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시간에 대한 단상

"그림자가 생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물의 어떤 부분이 빛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그림자가 있다. 탁자 위 컵을 비쳤을 때 그 반대편에 생기는 그림자인데 일종의 그늘(shade)에 해당한다. 일사광선이 불투명한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여 생기는 그림자를 영어로는 캐스트 섀도(cast shadow)라 하는데 이는 다시 물체 자체에서 생기는 그림자로 물체의 표면 윤곽이 그대로 그림자가 되는 1차적 그림자, 피사체 그림자가 근접한 벽이나 바닥에 생기는 것을 2차적 그림자, 물체 그림자가 주변에 있는 다른 피사체 위에 형성되는 것을 3차적 그림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림자는 광선 방향에 대해 90° 각도로 놓여 있는 밝은 색의 장식 없는 벽에 드리워지는 것이 가장 강하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배경이 어두울수록 그림자 효과가 감소된다. 그림자 윤곽에 따라 그것이 주는 효과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윤곽이 뚜렷할수록 그림자가 어둡게 보인다. 그림자 크기는 항상 피사체보다 큰데 라이트와 피사체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커지고 그림자 길이는 라이트가 떨어지는 각도가 작을수록 길어지며 라이트와 배경을 이루는 기울기 각도가 클수록 길어진다. 그림자는 확실

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모호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결국 순간의 결합체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잘나와 잘나와 접점이 만들어 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길이는 모

### 시간 / 신영

멈추었다  
 멎은 심장의 그 거리만큼  
 공간 안과 밖의 시간

어디쯤에서 기억할까  
 그 멈추었던 시간을  
 언젠가 보았던 얼굴  
 얼룩진 시간의 그림자

가고있다  
 오래 전 떠나왔던 그 길  
 그 길 따라 오늘도

너의 시간 속에  
 내가 머문다  
 내 가슴속에  
 너의 시간이 흐른다

두가 다를 것이다. 각자 삶에서 경험한 만큼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의 달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렀다고 기억마저도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시간이 쌓여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것이리라. 혼란스러웠던 80년대를 지나온 우리 체류탄 냄새를 아는 세대만큼은 적어도 잊지 않았으리라 그 날의 그 아픔과 혼돈을.

'잊지 말자'라는 말보다 '기억하자'라는 쪽의 마음을 두고 싶다. 누군가에 의해 잊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적어도 핏 내 짙은 비린내 서린 5월만큼이라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역사는 언제 어느 시대나 그렇게 흘렀다. 그러나 적어도 동시대에 서 겪은 내 조국의 서린 아픔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으며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저 입 밖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가슴 저 밑바닥의 슬픔의 요동침을 느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평안한 오늘을 살더라도 말이다. 가슴 깊이 묻혀 있는 질푸른 그림자를 다독여 주면 좋겠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50년 6·25전쟁이

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집권세력에 대항해 최초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1970년대 저항 운동의 수준과 한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흘쩍 40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잠들지 못한 영혼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픔에 애도의 마음을 드린다. 그렇다고 특별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5월의 슬픔과 쓸쓸함에 그들을 기억할 뿐이다. 처절하게 스러져간 그들의 주검들 속에서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찢긴 가슴의 한 조각을 주워내 가슴 한켠에 묻어놓는다. 그 슬픔이 다 마르는 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시간 속 아픔들이 스멀거리며 올라온다. 가슴 아픈 영혼들의 울음이 가슴을 오열을 터뜨리며 울부짖는다. 기억하자 시간 속 그 5월을.



## 한담객설閑談客說: 지덕체智德體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돌아간 영화배우 박노식이 나오던 선전 문구다. 영양제 선전이라 했는데, 흑백티비 화면을 가득 메웠다. 영양가 높아 건강해 보였던 거다. 선전에서 주인공은 잘생긴 사냥개도 데리고 있었던가? 그개도 점잖고 튼실해 보였다.

금 적에 교육조서에 나왔다고 했다. 이름하여 삼양三養교육이라는 거다. 존록크의 교육론이라고 했는데, 조선에서 채용되었다는 거다. 국민/초등학교적 교훈도 가르쳤다. 착한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그리고 똑똑한 어린이가 되자. 고종임금때 구호를 덕德과 체體와 지智로 순서를 바꾸었다. 내 고등학교적 모교의 교훈은 성실誠實이었다. 덕분에 친구들은 교명을

바꿔 놀리곤 했다. '성실고등학교.' 어디 성실뿐이라. 지성이요, 창조이며, 자율과 자립도 있을 수도 있다. 요사이 한국엔 재미있는 교훈이 제법 많은 모양이다. 급훈이라 해야 할 텐데, 그중 몇이다. 모두 입시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 엄마도 계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합격자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CCTV 작동 중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 이 바뀐다.

이젠 삼양교육에서 덕德이나 체體가 먼저가 아니다. 이미 지智요 입시 기술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한편 삼양은 삼양인데, 라면 선전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젠 선전문구도 바뀌어야 한다. 운동 못해도 좋다. 까칠해도 좋다. 심지어 공부 못해도 좋다. 하지만 제발 합격하기만 해다오. 지도 덕도 체도 아닌데, 오직 합격이 최상의 목표 인게다. 언젠게 체體이며 건강이 먼저라 해야겠다. 오죽하면 체력은 국력이란 말도 있었지 않았나. 정연복 시인이 다. 몸이 아플때 기도이다.

꽃잎이 낙엽 되듯 자연스런 일이겠지 만  
 알뜰히 돌보지 않아 병들고 상하는 일은 없게 하소서. (정연복, 몸이 아플때 기도 중에서)  
 객적은 소리이다. 삼양라면을 많이 먹으면 튼튼해 지는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신후라면과 오투기라면은 어떠한가? 일제 이찌방 라면 보다는 나를 계다. 환절기이다. 모두 건강하시라. 체력은 국력!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마가 5:34)

세월 따라 남아 가는 것은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27) 제대로 하는 롤오버(Rollover)

직장을 바꾸거나 은퇴를 준비할 때 열심히 투자한 401(k), 403(b), 457, TSP 등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니던 직장에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혹은 벵가드(Vanguard)나 피델리티(Fidelity)와 같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은퇴계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는 은퇴계좌는 직장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한 예로 은퇴계좌에서 사고 파는 횟수를 한 달에 몇 번만 허용한다는 규칙 등이 있다. 또한, 직장에는 은퇴계좌는 투자 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투자 경비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롤오버하는 과정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 시행해야 한다. 잘못된 과정은 은퇴자산 전액을 찾은 것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된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은퇴계좌에서 나온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옮기는 과정을 롤오버라고 한다. 직장에서는 은퇴계좌 전액을 수표(Check)로 보내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보내야 한다. 만일 60일이 초과하면 은퇴자금을 찾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은퇴계좌 가입자 나이가 59.5세 미만이라면 추가로 10% 페널티도 물어야 한다. 한 번 잘못된 실수는 은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제대로 하는 롤오버 하는 과정은 이러하다. 은퇴계좌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자. 은퇴자금이 옮겨 갈 금융회사를 먼저 선정한다. 한 예로 벵가드로 옮기기로 했다 고 하자. 벵가드에 롤오버(Rollover IRA) 계좌를 열면 계좌번호가 형성된다. 그다음 일했던 직장에 연락하여 은퇴자금(401k) 등을 직접 벵가드로 옮기겠다고 말한다. 회사는 회

사문서를 은퇴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서류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은퇴계좌를 옮길 수 있다.

첫째는 벵가드에 형성된 은퇴자금(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벵가드에 있는 은퇴계좌로 은퇴자금을 직접 트랜스퍼(Direct Transfer)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벌금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수표를 일단 은퇴자에게 보내는 회사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표를 회사가 작성할 때 은퇴자 이름인 홍길동으로 하지 말고 벵가드(Vanguard FBO 홍길동)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은퇴자가 사인할 필요 없이 벵가드 은퇴계좌 번호만을 수표에 기재한 후 벵가드로 보내면 된

다. 새 직장이나 은퇴 등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은퇴계좌를 옮기는 과정이 익숙하지 못하고 투자종목을 결정하기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계좌 옮기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룬다.

여러 은퇴계좌를 한곳에 모아(Consolidation) 운영하지 않으면 투자의 기본인 자산분배(Asset Allocation)와 분산투자(Diversification)를 제대로 형성해서 운영하기 어렵다. 또한, 요구된 인출금(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정확히 찾지 않으면 50% 벌금도 내야 한다.

투자 경비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모든 은퇴자금 계좌를 한곳에 모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영하기를 추천한다. 간단(Simple)해야 실수할 확률이 낮아진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혼 무효? 이혼?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한 지 4일 만에 결혼 무효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때 “케서방”으로 사랑받았던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니콜라스 케이지에게는 이번이 네 번째 결혼이었기에 결혼 무효 신청의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이번 결별을 결혼 무효 신청이라고 보도하는 반면, 어떤 매체에서는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혼선이 있지만, 정확하게 봤을 때 결혼 무효 신청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결혼 무효 신청과 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혼의 단어적 의미는 “혼인을 가르다”입니다. 즉, 결혼생활을 법적으로 마무리 짓고, 각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는 독신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뜻입니다.

이와 다르게, 결혼 무효 신청 (annulment)는 결혼 자체를 취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혼을 인정하고 그 결혼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이혼이라면, 결혼 무효 신청은

결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결혼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과정입니다.

결혼의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혼보다 결혼 무효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혼과 다르게, 결혼 무효 신청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마다 결혼 무효 신청의 조건은 다릅니다. 다만, 많은 주에서 아래의 이유를 결혼 무효 신청의 조건으로 인정해 줍니다.

- 중혼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던 경우
- 강제적 동의 - 배우자 중 한 명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로 결혼한 경우
- 사기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결혼에 동의한 경우
- 법으로 금지된 결혼 - 법으로 금지한 근친상간인 경우

• 정신 질환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였던 경우

• 정신적 무능력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을 경우

• 신체적 결합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성적 능력이 없을 때

• 미성년자 결혼 - 배우자 중 누구든 부모의 동의 혹은 법원의 승인없이 미성년자로서 결혼한 경우

니콜라스 케이지의 경우 결혼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결혼 무효 신청을 낸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 무효 신청이 인정될 확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결혼 무효 신청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속히 경험이 풍부한 가정

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결혼 무효 신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8만여편의 한국방송 및 최신영화  
내 안자로 골라보는 합법 IPTV

tv... Since 2008  
2008년부터 안정적인 합법권리료 서비스업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유익이기에 우리 가족도



티보플레이 **TBO** 1년에 단 한번

# 1+1 효도이벤트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사랑하는 부모님께 티보플레이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우리집에 설치  
첫번째 티보플레이 ~~\$34.99~~ \$29.99

부모님댁 설치  
두번째 티보플레이 ~~\$34.99~~ FREE

2번째 기기는 기기값만 \$55 (이용료 1년 면제) 1년 이후 \$9.99

1년간 \$1 유료 영화도 모두 무료

5월1일 ~ 6월 30일 (단 두달간)

##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티보플레이 1+1 효도이벤트



### 더 작아지고 강력해진 NEW 티보플레이

- 북미주 전역을 커버하는 판매/AS 딜러 네트워크
-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시간에 보는 서비스
- 마음 놓고 보는 합법 방송
- 리모콘 하나로 컴퓨터 없이도 쉬운 시청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채널  
티보에 모두 다 있다

TV켜고 리모콘누르면 끝!

컴퓨터 조작이 서투르신 부모님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실수 있습니다

성인가요 바둑 인기유튜브  
강의 종교/절교 드라마  
미주로컬라디오 다큐멘터리  
시사 예능 스포츠 뉴스



####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부** 시애틀 (KTR 253-835-1004) 북가주 (Sky Comm) 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6-4182 LA 교차로 (Kyochan) 213-383-1236
- 중부** 시카고 (교차로) 847-391-4112 필라델피아 (News Korea) 872-247-9111 샌안토니오 (코리안 마켓) 210-445-1535 덴버 (아리랑 마켓) 303-756-1743
- 동부** 애틀랜타 (SND Tech LLC) 678-584-6514 오하이오 (주강필라) 267-230-7773 버지니아 (NAV Computer) 709-942-6822  
보스턴 (The Boston Korea) 617-949-1766 NY 교차로 (Kyochan) 917-685-066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 캐나다** 토론토 (경향미디어)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68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49-1766**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朋 (붕)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또는 붕우(朋友))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 요한복음 15:15 -

한국 대전시(大田市)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한버스회사에서 75세, 85세난 직원 2명이 4년간 출근 한 번 하지 않고 각각 5,000만원, 1억원씩 월급을 받아 간 것이 적발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부산과 수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국민세금이 수십억원씩 빠져나갔단다.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합(合)하면 전체 부정 수금액은 훨씬 더 높을 것. 모두 국민세금(税金)이다.

서울 등 7개 시도(市·道)가 해마다 준(準)공영제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금액이 1조(兆)원을 넘는다. 이 많은 세금을 주면서도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하지 않는 지자체(地自體)들도 있었다.

주(週) 52시간제 강행으로 버스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하자 또 세금 1조(兆)원 이상을 준단다. 이중 상당액도 눈먼 돈이 돼 사라진 단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달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兆)원을 밀어내기 식(式)으로 뿌리는 바람에 퇴사(退社)한 직원이나 일 안하는 사업주가족 지갑으로 돈이 들어가고 심지어 신청 안한 업체에도 지원금을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어떤 사업주는 “이렇게 세금을 써도 돼느냐?” 고 따지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고 말한 다음날 4월 실업률이 19년만의 최고인 4.4%로 발표됐었다.

실업자수 역시 2000년 후 최고치이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 25.2%는 통계작성 후 최악이었다고.

1주일 전 취임2주년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고 말했지만 제조업 등 양질(良質)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든 반면 질(質) 낮은 초만기 노인(老人) 일자리만 늘어났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과 반대인 엉터리’ 를 말하는게 이전 별다른 애깃거리도 아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거의 50년만의 최저로 내려가는 고용 호황(好況)이다.

영국의 1/4분기 실업률은 45년만의 최저치, 독일의 4월 실업률은 1190년 통일 이후 최저. 일본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할 만큼 완전고용상태. 한국만 갈수록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정책 오류의 결과이다.

최저임금 29% 인상, 근로시간 축소 등 비용만 늘리는 정책처방으로 경제활력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비용(高費用) 부담에 기진맥진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나?

잘 못된 정책을 수정(修正)하지 않으면 일자리 대란(大亂)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를 비아냥거리는 논평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성공이 최악의 실업률” 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빈정거리는 논평이 쏟아졌다.

이근수씨는 “노무현(전 대통령)이 봉하리에서 자살한 이후 문(재인)씨의 삶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낱말의 뜻이 우리(일반국민들)와는 다른 괴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다. 큰일이다.” 우덕일씨는 또 “문재인 인간이 人造人間으로 바뀌었나 헛고리나 중얼거리니 박정희(전 대통령)와 천양지차이다. 다 같은 인간이 왜이리 차이가 날까 못난 조상 때문에 거지로 살던 이 나라가 겨우 살만하니까 문 정권이 다 망치는구나. 바닥으로 내려앉기 전에 주사과 정권 박살 내야 이땅의 젊은이들 살아난다.” 고 주장한다.

붕(朋: 友也우야 - 벗 붕) 친구 두사람이 나란히 짝지운 모양. 왜 친구를 月(월: 달 - 하늘에 뜬)로 표시했을까?

일주일 7일(日)은 첫날이 일(日)요일 둘

째날이 월(月)요일, 글자표시대로 日=햇빛, 월=달빛은 햇빛이 반사되야 “빛(光:광)을 받을 수 있다” 까닭에 月은 ①몸:門=遠界 멸경-즉 “月的 몸” 을 뜻하고 그 안에 “二” 가 들어왔은 것은 “聖父:하나님, 일(日=햇빛)으로 聖子:예수 그리스도의 身分(신분) 즉 三位一體(삼위일체) 중 두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빛(日: 태양의 빛)을 받는 月(월: 삼위일체 중 두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月(월):일요일 다음 월요일의 地位. 해서 붕(朋)은 “예수 그리스도 月(월)을 사람의 몸(月)으로 받아” 따라가는 예수님(月)의 형제(朋:붕)로 증명되지만 朋의 증명(證明)을 정확히 나타내는 朋의 식구들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月(월)은 글자모양대로 肉(肉:육신)속에 “하늘나라” 를 향한 윗사람(肉)과 땅에 머무는 육신(肉身:육신)이 합쳐 예수 이름에 합(合)한 肉:몸 바깥사람과 세상에 합한 몸안 사람(肉)이 함께한 사람만이 月:달-햇빛을 받아 달빛은 나타내니까 그러므로 朋(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食口) 로 化(화)해 졌다는 진리. 까닭에 朋은 “햇빛을 받은 달(月)의 식구”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쌍(朋)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절대적인 신분이 라는 것!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75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1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579년 8월 24일(음력 7월 17일), 진지왕이 폐위되고 어린 김백정이 신라 제26대 왕으로 등극했다. 그가 진평왕이다('진지왕의 폐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삼국유사에는 있으며, 화랑세기에는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전한다). 진평왕의 출생연도에 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없는데 화랑세기에는 567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버지 동륜태자는 572년에 사망하였다. 동륜태자는 태자빈 만호와 함께 아들 셋을 두었다. 장자 김백정(진평왕)과 백반과 국반이 그들이다. 백반(진정갈문왕)과 국반(진안갈문왕)의 생몰년은 알 수 없지만, 터울을 두살로 가정해 보면 화랑세기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백정이 12세에 왕위에 오를 당시 진흥왕의 후궁들이 미실과 보명이 좌우후左右后로서 색도를 하였다. 그는 미실과 보명 뿐만 아니라 세명의 태후들에게 둘러 쌓여 있었다. 그중 가장 큰 어른이 조모인 태상태후 사도법주(진흥왕의 비)였으며, 사도가 584년까지 섭정을 하였다. 다음은 진지왕의 왕비 지도태후이다. 그리고 생모인 만호태후. 그는 동륜태자의 빈으로 차기 왕비를 바라보다가 남편 동륜태자가 개에게 물려서 세상을 뜨자 왕비의 자리가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만호태후는 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후일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태후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왕비가 되지 못하고도 대비가 된 사례가 있다. 성종의 생모 인수대비가 그 주인공이다. 한확의 딸로 1450년 세종의 첫 손자이자 수양대군의 장자인 만 12세의 도원군의 군부인이 되었다. 그리고 수양이 1453년 계유정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우리가 현실이 되어 1455년 조카 단종을 '상왕으로 모시고' 왕위에 오르자, 도원군은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가 의경세자이다. 세자빈이 된 한씨는 곧 왕비가 되는 수순이었지만 병약한 세자가 세조보다 먼저 만 19세에 요절하면서 왕비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절치부심하듯 사가에서 두 아들과 딸(장남 월산대군, 장녀 명숙공주, 차남 성종)을 키우고 있던 중, 세조의 차자로 왕위에 올랐던 예종이 13개월만에 죽자 왕위는 자신의 둘째아들 자을산군에게로 돌아왔다. 1469년 성종으로 왕위에 오르자 환궁하였고, 도원군(의경세자)이 덕종으로 추존되면서 왕후의 시호를 받았다(인수 지속휘숙명의 소혜왕후仁粹慈淑徽肅明懿昭惠王后).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의 비가 되지 않고서 대비가 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조선 제18대왕 현종의 왕비 명성明聖왕후는 조선왕조에서 유일하게 소위 '3관왕'을 쓴 주인공이다. 그는 효종의 적장자 166인 현종이 세자로 있을 당시, 1651년 만 9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659년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물론 왕비가 되었다. 1674년 현종이 죽고 적장자 숙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비가 되었고, 1683년 사망할때 까지 10여년간 대비로 있었다. 명성왕후처럼 적장자의 세자와 혼인하여 세자빈으로 8,9년을, 다음에는 왕비로 15년간 지낸 후 적장자에게로 왕위가 양위되면서 왕대비로 10여년간 일생을 보낸 여인은 동서고금의 왕조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이다. 명성왕후는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지능이 비상하고 총명하였다'고 기록된 바와는 다르게,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명칭'하게 죽었다. 그녀에 관한 일화가 무수하지만 두 가지만 나누어 본다. 먼저 그녀는 총명하고 비상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격이 너무나 거칠고 사나워서 남편인 현종이 후궁을 한 명도 두지 못했다. 167)

그리고 평소 무속신앙을 신봉했던 명성왕후는 1683년 아들 숙종이 병(奇疾)에 걸려 사경을 헤매자 아들의 무사쾌유를 기원하는 곳을 하였다. 무당이 숙종에게 삼재三災가 있어 기질을 앓고 있으니 어머니가 샷갓을 쓰고 훑치마만 입은채 물벌을 서야 한다고 계시를 내리자, 명성왕후는 무당의 황당한 주장을 받아드려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훑치마에 샷갓을 쓰고 장시간 물벼락을 맞았다. 그로 인해 지독한 독감에 걸렸고, 결국 그해 12월 5일(음력)에 만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무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신들도 걸어다녀야 했던 궁궐에 대비의 권세로 옥교를 타고 출입을 했던 무녀, 모든 대신들이 처형해야 마땅하다고 벌떼같이 일어났지만 숙종은 그녀를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내는걸로 명성왕후의 '훑치마와 물벌水罰 사건'을 종결하였다.

166) 조선의 27왕 중 장자 승계를 한 왕은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경종 7명뿐이다. 그런데 효종이 봉림대군으로 심양에 있을때 요절한 적1남이 있다. 죽은 날의 기록(1642년 4월 19일)은 전하는데 출생일의 기록은 없다. 아마도 며칠, 또는 몇 시간 살지 못했기에 적자 현종을 장자 승계로 보는것 같다.

167) 실록(숙종9권, 6년)에는 현종의 승은을 입은 궁녀가 한 명 등장하지만 후궁은 없었다. 김상업金常業, 현종의 승은을 입은 유일한 궁녀, 그런데 그녀가 '홍수의 변紅袖之變'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홍수의 변은 '삼복의 변'의 발판이 되었고, 마침내 삼복의 변은 '경신환국'으로 이어졌다. 홍수란 '붉은 옷소매'란 뜻으로, 당시 궁궐의 젊은 나인들은 옷소매 끝단에 자주색 물을 들인 옷을 입었기에 '젊은 나인'을 상징하는 호칭이다. 삼복은 인조의 3남 인평대군의 아들 들인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이다. 삼복의 변은 명성왕후가 아버지 김우명과 짜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삼복과 연적인 궁녀 김상업을 제거하기 위하여 삼복들이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를 간통하여 자식을 보았다며 꾸민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우명의 무고와 반전을 거듭한 삼복의 간통사건으로 김우명의 낙향과 죽음(자살?)으로, 허적의 서자 허견이 삼복과의 역적모의로 남인들의 사사와 옥사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김석주와 김익훈은 서인들과 합세하여 남인들을 일망타진하였다(경신환국, 1680년). 역사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훗날의 기사환국, 갑술환국, 무고의 옥, 신임사화 등의 비극적인 참화로 연결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조선왕조실록

1948 3·1분통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87 4·13 혁명 1988 5·16 민주화운동 1987 5·10 민주회복 1990 8·15 60주년 기념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100주년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 한인업소록



##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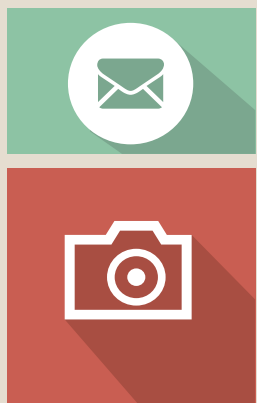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mailto: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사쓰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톤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7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 마음대로 골라본다

\$24<sup>99</sup>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sup>99</sup>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sup>99</sup>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sup>99</sup>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